東 · 亞 · 文 · 化 · 44

『周易四箋』과 정약용의 易해석 방법

琴 章 泰

1.『주역사전』의 저술과정
2. '역'의 성립과 구성에 대한 해석
3.『주역사전』의 구성과「독역요지」(讀易要旨)의 '역' 이해
1)『주역사전』의 구성체제
2)「독역요지」(讀易要旨) 18칙의 '역' 이해
4. '역리사법'(易理四法)과 '역' 해석의 방법
1) '역리사법'(易理四法: 推移 · 物象 · 互體 · 爻變)의 '역' 해석
2) '3역'(三易: 交易 · 反易 · 變易)의 '역' 해석
5. '역리사법'의 역학적 의미

『주역사전(周易四箋)』과 정약용의 역(易)해석 방법

琴 章 泰*

1. 『주역사전』의 저술과정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3-1836)은 강진에서 보낸 18년간(1801-1818)의 유배생활 동안 방대한 저술을 이루어 실학사상을 체계화하였다. 그는 유배시기의 저술 가운데서도 역학에 관한 저술인 『주역사전』(周易四箋, 1808년 완성)과 예학에 관한 저술인 『상례사전』(喪禮四箋, 1811년 완성)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특히 이 두 저술에 대해 얼마나 강한 애정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 "『주역사전』은 내가 하늘의 도움을 얻어 지은 문자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소통시키거나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책에 마음을 침잠하여 오묘한 뜻을 모두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나의 자손이요 붕우이니, 천년에 한 번 만나더라도 배 이상의 정으로 애지중지해야 할 것이다. 『상례사전』은 내가 성인을 독실하게 믿고 지은 문자요, 스스로는 미친 듯 거친 물결을 돌리고 모든 시냇물을 막아 수사(洙泗: 공자와 맹자)의 참된 근원으로 돌이켰다고 여기는 것이다. 정밀하게 생각하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 고 관찰하여 그 오묘한 뜻을 터득하는 사람이 있다면 곧 뼈에 살을 붙여주고 죽은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니, 천금을 주지 않더라도 받은 것처럼 감지덕지해야 할 것이다. 이 두 책만 전하여 이어갈 수 있다면 나머지 책들은 비록 폐기되더라도 괜찮겠다."[1]

또한 정약용은 친우 윤영희(尹永僖)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자신이 소년시절 부친의 곁에서 『주역』을 읽기 시작하였던 이후로, 젊어서 광범하게 독서하는 과정에서 『주역』에 대해서만은 깊은 이해에 도달하기가 어려웠던 사실을 토로하고, 강진 유배생활의 초기에 자신이 『주역』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과정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 "책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어느 것도 기(氣)가 꺾여 포기한 적이 없는데, 오직 『주역』만은 바라보기만 해도 기가 꺾여 탐구하고자 하면서도 감히 손도 대지 못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오.…강진에 유배된 이듬해(1802) 봄에 「사상례」(士喪禮: 『儀禮』의 한 편)를 읽고, 이어 상례에 관한 여러 책들을 읽어보니, 주(周)나라의 옛 예법은 대부분 『춘추』에서 증거를 취하였기 때문에, 이어 『춘추좌전』을 읽기로 하였다오. 이미 『춘추좌전』을 읽기로 하였으니, 상례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해도 널리 보지 않을 수가 없었소. 드디어, 『춘추』에 실려 있는 관점(官占: 나라의 卜官이 치는 점)의 법도에 대해 때때로 곰곰히 탐색하니,…깨닫는 바가 있는 듯하다가도 도리어 황홀하고 어렴풋하여 도저히 그 통로를 찾을 수가 없었소. 의심과 분한 생각이 마음 속에 교차되어 거의 먹는 것도 그만두려고까지 하였다오. 그래서 보고 있던 모든 예서(禮書)를 다 거두어 넣고서 오로지 『주역』 한가지만 책상 위에 놓고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밤낮으로 깊이 탐색하였소. 대개 계해년(1803) 늦은 봄부터는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입으로 읊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붓으로 쓰는 것에서부터 밥상을 대하고 변소에 가고 손가락을 퉁기고 배를 문지르는 것까지 하나도 『주역』이 아닌 것이 없었다오."[2]

---

1) 『與猶堂全書』, 第一集(新朝鮮社本. 이하 '『與全』[1]'로 줄임), 권18, 5, '示二子家誡', "周易四箋, 是吾得天助之文字, 萬萬非人力可通, 智慮所到, 有能潛心此書, 悉通奧妙者, 卽子孫朋友, 千載一遇, 愛之重之, 當倍常情, 喪禮四箋, 是吾篤信聖人之文字, 自以爲回狂瀾而障百川, 以反洙泗之眞源者, 有能精思密察, 得其奧妙者, 此肉骨生死, 千金不授, 感之德之, 如有受賜, 卽此二部, 得有傳襲之, 餘雖廢之可也."

이처럼 그는 유배초기에 상례(喪禮)를 연구하면서 그 증거를 찾다가 『춘추좌전』을 읽게 되었고, 『춘추좌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관점(官占)의 사례를 접하게 되었고, 이 춘추시대의 관점을 궁리하는 것을 계기로 마침내 『주역』의 연구에 몰입하게 되었던 경과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정약용은 1803년 봄부터 『주역』연구에 몰입하여 스스로 역리(易理)를 깊이 통달할 수 있게된 다음, 그해 겨울 동짓날부터 다시 『주역』을 정밀하게 읽고 여러 학설을 검토하고나서 이듬해(1804) 여름부터 겨울 사이에 『주역사전』의 저술을 마쳤는데, 이것이 첫 번째인 갑자본(甲子本 8권)이다. 그러나 그는 갑자본이 역 해석의 기본 이론(易理四法)을 갖추고 있지만 소략하고 불완전하다고 하여 다시 그 이듬해(1805) 수정한 것이 두 번째인 을축본(乙丑本 8권)이다. 그리고 나서도 을축본에서 반영하지 못한 양호(兩互)와 교역(交易)의 형상을 새롭게 적용하여 그 다음해(1806)에 다시 대폭 수정한 것이 세 번째인 병인본(丙寅本 16권)이다. 이어서 네 번째로 그 다음해(1807)에 파성(播性)과 유동(留動)의 의리를 새롭게 적용시키고 수정하여 정묘본(丁卯本 24권)을 이루고,[3]

---

2) 『與全』[1], 권19, 19-20, '與尹畏心永僖', "旣已名之爲書者, 蓋未有怊悵掩卷者, 而獨於易望之氣沮, 欲探而不敢手者屢矣,…譎康津, 厥明年春, 讀士喪禮, 因而讀喪禮諸書, 乃周之古禮, 多於春秋取徵, 於是讀春秋左氏傳, 旣讀左氏, 其有不當於喪禮者, 不能無旁及, 遂於春秋官占之法, 時加玩索,…若有所蓦然開悟者, 顧恍忽依俙, 不得其門, 疑憤交中, 殆欲廢食, 於是盡收斂諸禮書而藏之, 專取周易一部, 措諸案上, 潛心玩索, 夜以繼晝, 蓋自癸亥暮春, 目之所眡, 手之所操, 脣之所吟, 心志之所思索, 筆墨之所鈔錄, 以至對飯登圊, 彈指捫腹, 無一而非周易."

3) 乙丑本을 완성한 다음 歸妹卦 初九 爻辭의 해석이 小過卦의 형상에서 취한 것임을 깨닫고, 師卦 九二의 爻辭에서는 卦主의 變象을 취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는, 자신의 爻辭해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보니 열에 일곱·여덟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던 것이 丙寅本이라 한다. 『與全』[1], 권14, 40, '題讀易要旨後'.

다시 이듬해(1808)에 정밀하게 수정하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 무진본(戊辰本 24권)을 완성하였다. 이처럼 그는 『주역사전』의 저술을 이룬 뒤에도 해마다 한차례씩 네 번이나 수정본을 저술할만큼 이 저술의 진선진미한 완성을 추구하는데 엄청난 심혈을 기울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4]

정약용의 『주역사전』은 『주역』해석의 기본방법으로서 추이(推移)·물상(物象)·호체(互体)·효변(爻變)의 '역리사법'(易理四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주역사전』의 첫머리에 수록한 「사전소인」(四箋小引)에서 '역리사법'의 네가지 역해석 방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네가지 모두가 주자에 의해 이미 제시된 것임을 지적하였다.[5] 여기서 그는 "오직 주자의 괘변도(卦變圖)와 호체설(互體說)과 점변법(占變法)만이 왕필(王弼)의 고루함을 통쾌하게 씻어내었다. 그러나 주자의 은미한 말씀과 오묘한 취지는 여전히 『주역본의』에 실려있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뜻이 감추어져 후학들이 감히 손을 대거나 발을 붙이지 못하는 까닭이다"[6]라고 하여, 주자의 역해석 방법이 역학전통의 과오를 바로잡아주는 탁월한 역할을 발휘한 것이라 인정하면서도, 주희의 역해석에서도 여전히 투명한 논리가 제시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역리사법'을 체계화하여 역해석에 적용시킴으로써, 그동

---

4) 『與全』[2], 권37, '題戊辰本'.

5) 方仁교수는 다산의 '易理四法'과 朱子의 방법론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주목하면서, 특히 爻變과 推移의 해석법에 있어서 양자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方仁, 『周易四箋譯註』, 해제, ??쪽) 본 논문은 方仁교수의 『周易四箋譯註』의 명확한 번역과 정밀한 주석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각주에서 인용한 원문은 方교수의 교열을 따랐다.

6) 『與全』[1], 권19, 20, '與尹畏心永僖', "唯朱子卦變之圖及其互體之說, 占變之法, 痛滌王弼之陋, 而朱子之微言妙旨, 仍亦不載於本義, 此所以因仍沈晦, 而後生末學, 遂不敢下手著脚也."

안 어둠과 애매함에 감추어져 있던 『주역』을 투명하게 꿰뚫어 해석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지금 설괘(說卦)의 글과 변동의 법도를 취하고서 마음을 침잠하여 384효의 사(詞: 爻辭)에서 찾아보면, 글자마다 부합하고 구절마다 부합되어, 다시 털끝만큼이나 반점만큼도 의심스러워 통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유학의 거장들도 대문만 바라보고 달아나던 오묘한 말과 은미한 말들도 대나무가 쪼개지듯한 형세로 칼날을 만나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7]

이처럼 정약용은 자신의 『주역사전』이 '역리사법'의 방법으로 『주역』의 모든 글자 모든 구절을 통쾌하고 투명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자부하였던 것이다.[8] 그는 친우 윤영희에게 보낸 편지에서 '역리사법'이 '역'의 온갖 난해한 관문을 열어젖히고 그 감추어진 깊고 오묘한 세계를 드러내는 것을 '열쇠'(鑰匙)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그만큼 그 자신의 '역리사법'을 중심으로 하는 '역'해석 방법이 온갖 억측과 자의적 해석으로 가리워진 '역'을 통쾌하게 해석하여 명확하게 밝혀주는 방법으로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비유하자면 마치 건장궁(建章宮: 漢 長安의 궁궐이름) 궁전에는 천개의 대문 만개의 쪽문이 있는데, 종묘의 아름다움과 백관의 많음이 모두 그 속에 있다. 다만 쇠자물쇠가 단단하게 채워져 있고 수비가 매우 엄중하여 만명의 사내가 대문 앞에 와도 감히 엿볼 수가 없지만, 갑자기 한 꾸러미의 열쇠가

---

7) 『與全』[1], 권19, 21, '與尹畏心永僖', "今取說卦之文及變動之法, 潛心究索於三百八十四爻之詞, 則字字符合, 句句契比, 無復一毫半點之疑晦不通者, 凡其奧言微詞之必不可解, 鴻工鉅儒之望門却走者, 無不破竹之勢, 迎刃以解."

8) 김영우는 주자와 다산의 역학에서 보이는 차이점의 하나로 "다산은 『주역』이 하나의 체계적인 해석방법에 의해 완벽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고, 주자는 완벽한 해석방법의 규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김영우, 『정약용의 역학사상연구』, 2000,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0쪽.

> 손 안에 떨어진다면 그것으로 바깥 대문을 열면 바깥 대문이 열리고, 중간 대문을 열면 중간대문이 열리며, 고문(皐門: 궁성의 바깥문)과 고문(庫門: 皐門 안쪽문)을 열면 고문(皐門)과 고문(庫門)이 열리고, 응문(應門: 雉門 안쪽문)과 치문(雉門: 庫門 안쪽문)을 열면 응문과 치문이 열린다. 이에 천개의 대문과 만개의 쪽문이 활짝 열려 관통하게 되니, 해와 달이 밝게 비치고 바람과 구름이 온화하고 아름다워 이른바 종묘의 아름다움과 백관의 많음이 환하게 베풀어져 있어 일일이 지적할 수 있으니 천하에 이런 통괘함이 있으랴."[9]

정약용의 둘째형 정약전(丁若銓)은 『주역사전』이 저술되자 이를 읽고나서, "처음에는 놀라고, 다음에는 기뻐하다가, 마침내는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졌으니, 미용(美庸: 정약용의 字)을 어떤 부류에 비교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10]라고 극진한 찬탄과 감복의 뜻을 밝혀, 자신의 감회를 서술하였다. 이처럼 『주역사전』에서 제시된 '역'해석의 방법은 역학의 탁월한 방법으로 인정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고향에 돌아와 『역학서언』(易學緖言, 1820)을 저술하여 한(漢)나라때 이후 『주역』연구가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역학사적 이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주역사전』이 지닌 독자적 위치와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약용의 『주역사전』을 중심으로 『주역』해석의 구성체제를 해명하고, 그가 시도하는 '역'해석의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그의 역학이 지닌 '역'해석의 이론적 기반을 해명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

9) 『與全』[1], 권19, 21, '與尹畏心永僖', "譬如建章宮殿, 千門萬戶, 宗廟之美, 百官之富, 皆在其中, 但其鐵鑰牢固, 屈戌深嚴, 萬夫當門, 莫之敢窺, 忽有一條鑰匙, 落在手中, 以之啓外門而外門闢, 以之啓中門而中門闢, 以之啓皐門庫門而皐門庫門闢, 以之啓應門雉門而應門雉門闢, 於是乎千門萬戶, 豁然貫通, 而日月照明, 風雲藹蔚, 凡所謂宗廟之美, 百官之富, 昭森布列, 歷歷可指, 天下有是快哉."

10) 丁若銓, 「周易四解序」.(實是學舍經學研究會 編譯, 『茶山의 經學世界』, 한길사, 2002, 193쪽), "余始而駭, 中而悅, 終而不覺膝之屈, 不知擬美庸於何等倫類也."

2. '역'의 성립과 구성에 대한 해석

정약용은 '역'이 복희에 의해 획이 그려지고 문왕과 주공에 의해 괘사와 효사가 지어졌으며, 공자에 의해 「십익전」이 지어졌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그는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에서는 복희가 8괘를 그리고, 문왕이 64괘를 그렸다는 기록에 대해, "만약 중괘(重卦: 8괘가 중첩된 64괘)가 없다면 8괘는 소용이 없다. 이제 복희가 8괘를 짓고서 수천년 동안 벌여놓고 쓰지 않다가 문왕에 이르러 비로소 중괘를 그렸다고 말하니, 당시 유학의 거장(班固를 가리킴)이 한 말도 또한 이렇게 몽매한 것이 많았다"[11]라고 비판하였다. 곧 8괘는 64괘를 그리는 선행단계로 제시되는 것이지만, 8괘만 가지고는 '역'의 본래 목적인 점을 칠 수 없기 때문에 64괘가 없이 8괘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12] 이에 비해 주자는 『주역본의』(周易本義)에서 '복희64괘방위'(伏羲六十四卦方位)의 그림을 제시하였고, 복희 때에 64괘가 그려졌다는 언급을 하여 정약용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3]

---

11) 『與全』[2], 권45, 25, '易學緖言·班固藝文志論', "若無重卦則八卦無用, 今云宓戲作八卦, 數千年陳而不用, 至文王始畫重卦, 當時鉅儒之言, 亦多蒙昧如此."

12) 8괘만으로는 점을 칠 수 없어서 소용없다는 정약용의 견해와는 달리 王寧生은 『八卦起源』에서 四川 凉山 彝族의 占卜방법에서 '雷夫孜'·'畢摩'라는 무당이 細竹이나 草杆 한묶음을 두 손으로 나누어 奇數·偶數의 3배열인 8가지를 얻어 점을 치고 있는 사실이 『주역』의 경우와 매우 유사함을 지적하여 8괘로도 점을 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周振甫, 『周易譯注』, 中華書局, 1991, 5-6쪽에서 재인용)

13) 주자는 "복희가 괘를 그린 것으로 논하면 64괘가 일시에 갖추어졌다"(若論伏羲畫卦則六十四卦一時俱了.<『주희집』, 권54(2730쪽), '答王伯禮(洽)'>)고 언급

그는 “성인이 괘를 벌여놓고 형상을 살펴서 이 괘에 말을 달아 길·흉을 밝혔다”(聖人設卦, 觀象繫辭焉而明吉凶.<繫辭上>)는 구절에 대해, ‘성인’이란 문왕과 주공을 말하는 것이라 하고, 복희 때부터 있던 괘(64괘)를 벌여놓고 사물의 형상이 오르고 내리며 가고 오는 것을 묵묵히 살펴 점치는 말(繇詞)을 달아놓은 것이라 설명한다.[14] 여기서 괘에다 달아놓은 점치는 말이란 괘사(卦辭: 卦詞)와 효사(爻辭: 爻詞)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는 괘사를 ‘단사’(彖詞)라 하며 문왕이 지은 것이라 하고, 『주역』에서 ‘단왈’(彖曰)이라고 한 것은 문왕이 지은 ‘단사’(彖詞: 卦詞)를 공자가 해석한 글이라 구별한다.[15] 여기서 우선 정약용이 ‘역’해석에서 ‘괘사’와 ‘단사’를 일치시키고 ‘단사’와 ‘단왈’을 구별하고 있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16]

또한 그는 “강(剛)효와 유(柔)효가 서로 밀어가니 괘·효의 변화가 그 가운데 있고, 괘·효에 말을 달아 길·흉을 고하니 효의 변동이 그 가운데 있다”(剛柔相推, 變在其中矣, 繫辭焉而命之, 動在其中矣.<繫辭下>)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문왕이 단사를 짓고 주공이 효사를 짓게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였는데, 정약용은 주자의 이 구절을 인용하여 8괘가 그려지면서 64괘가 동시에 그려졌다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與全』[2], 권44, 8, ‘周易四箋·繫辭下傳’)

14) 『與全』[2], 권44, 3, ‘周易四箋·繫辭上傳’, “聖人謂文王周公也, ···陳列舊存之卦(卦自庖羲時有之), 而默觀其物象之升降往來, 乃繫之以繇詞也.”

15) 『與全』[2], 권37, 36 ‘周易四箋·乾卦’, 彖詞本文王所作(卽卦詞). 此云彖曰者. 孔子釋彖之文也.

16) 馬融도 ‘彖辭’를 卦辭라 하고(『釋文』), 孔穎達도 ‘彖辭’는 ‘卦辭’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였다.(朱伯崑, 『易學哲學史』(1), 北京大學出版部, 2005, 48쪽)

"단사(彖詞: 문왕이 지었다)는 오로지 12벽괘(辟卦)가 추이(推移)하는 형상에 의거하여 물상(物象)을 섞어 글을 이룬 것이다. 12벽괘의 단사는 또한 음·양이 성장 소멸하는 운행(예: 坤卦에서 陽이 모두 소멸되면 復卦에서 陽 하나가 살아나는 것)에 의거하고, 교역(交易)과 반대(反對)의 의리(예: 臨卦는 觀卦를 뒤집은 것이니, '8월에 흉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 미쳐서 형상을 취하여 글을 지은 것이다.

효사(爻詞)는(주공이 지었다) 12벽괘가 추이하는 형상에 근본하고, 해당 효가 변하는 형상을 아울러서 물상을 섞어 글을 이루었다. 이것이 이른바 말을 달아 고한다는 것이다.…'고한다'(命之)는 것은 괘획이 본래 감정이나 의도가 없으니 오르내리거나 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문왕과 주공이 이 64괘 속에 진실로 12벽괘(辟卦)가 종주가 되고 50연괘(衍卦)가 모두 여기서 변화되어 나오는 형상이 있음을 보고서, 이에 말을 달아 고하였으니, 괘·효가 변동하는 법도는 바로 그 가운데 있다."[17]

여기서 그는 문왕이 지은 '단사'나 주공이 지은 '효사'는 64괘가 12벽괘의 추이에 근거하여 괘·효가 변동하는 형상을 말로 알려주는 것임을 확인한다. 곧 복희가 그려놓은 64괘를 앞에 놓고 문왕과 주공은 그 괘와 효의 사이에 변동하는 형상을 읽어낸 것이고, 이를 사물의 형상과 연관시켜 말을 달아놓은 것이 단사(괘사)와 효사라는 것이다. 그는 이때 64괘의 변동질서 속에서 12벽괘가 종주가 되어 여기서 다시 50연괘로 변화가 일어나는 해석의 방법이 문왕과 주공의 단사·효사가 이루어지게된 근본원리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는 "'상'(象)이란 복희가 괘를 그린 이후 각 괘의 본래 형상이다.(괘가 아직 변하지 않음) '변'

17) 『與全』[2], 권44, 7-8, '周易四箋·繫辭下傳', "彖詞(文王作), 則專據十二辟推移之象, 而雜物成文, 十二辟之彖詞, 又據陰陽消長之運(如坤極消而復一陽生), 及交易反對之義(如臨觀, 倒則八月有凶), 而取象立文. 至於爻詞(周公作), 則本之以十二辟推移之象, 兼之以本爻所變之象, 而雜物成文, 此所謂繫辭焉而命之也.…命之也者, 謂卦畫本無情意, 非能升降而往來也, 文王周公看此六十四卦之中, 實實有十二辟卦爲之宗主, 而五十衍卦皆來受變之象, 於是乎繫之詞而命之, 則變動之法, 卽在其中矣."

(變)이란 점치는 자가 시초를 헤아린 이후 하나의 효가 변하는 형상이다.(예: 乾卦가 姤卦로 변함) 문왕이 지은 '단사'는 괘의 본래 형상으로써 말을 해놓은 것이요, 주공의 '효사'는 그 변하는 형상으로써 말을 해놓은 것이다"[18]라고 하여, 문왕의 '단사'는 아직 변하지 않은 괘의 본래 형상에 붙인 말이요, 주공의 '효사'는 점을 쳐서 괘의 효가 변한 형상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논어』에는 공자가 정(鄭)나라 광(匡)땅에서 사람들에 포위당해 위기에 빠졌을 때, "문왕이 이미 죽었으나, '문'(文)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하늘이 장차 이 '문'을 없애고자 한다면 뒤에 죽는 사람이 이 '문'에 참여할 수 없겠으나, 하늘이 이 '문'을 없애지 않는다면 광땅 사람이 나를 어쩌겠느냐"(文王旣沒, 文不在玆乎, 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不得與於斯文也, 天之未喪斯文也, 匡人其如予何.<論語·子罕>)고 언급한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해 그의 둘째 형 정약전(丁若銓)은 여기서 말하는 '문'(文)이란 문왕이 편찬한 『역』의 단(彖)·상(象)으로 당시 공자가 그 『역』의 책자를 손에 들고 있다가 손바닥을 내밀어 보이듯이 보여주며 말한 것이라 해석하였다. 또한 정약전은 공자가 문왕이 편찬한 『역』을 항상 간직하고 다니며 이 『역』으로 천명을 들어왔지만, 광땅에 있을 당시는 아직 '십익'을 저술하지 않았던 시기라고 보는 창의적 해석을 제시하였다.[19] 그는 정약전의 이 해석을 받아들여 소개함으로써, 공자가 『주역』을 항상 지니고 다니며 깊이 연구하였던 사실과 십익(十翼)의 전(傳)을

18) 『與全』[2], 권44, 4, '周易四箋·繫辭上傳', "象者, 庖羲畫卦以來, 每卦之本象也(卦未變), 變者, 筮人揲蓍之後, 一爻之變象也(乾之姤), 文王彖詞, 以其本象而爲之辭者也, 周公爻詞, 以其變象而爲之辭者也."

19) 『與全』[1], 권10, 13, '論語古今註·子罕', "仲氏曰文不在玆, 謂彖象在此, 玆者指簡編也.…斯者指物之詞, 某在斯示諸斯是也.…聖人一生, 唯聽天命, 故周易一部, 不離其身.…孔子胸中已具一部十翼, 此時姑未撰述, 故有此言也."

지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역'에서 괘효의 성립과정에 대해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태극'이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는 '사상'(四象)을 낳고, '사상'은 '팔괘'를 낳는다"(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繫辭上>)는 언급에 따라 통상적으로 태극→양의→사상→팔괘→64괘의 순서로 '역'의 성립과정을 이해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주자도 "하나(太極)는 언제나 둘(兩儀)을 낳으니 자연의 이치이다. '역'은 음·양의 변화요, 태극은 그 이치이다.…이 몇마디 말은 실로 성인이 '역'을 만드는 자연의 차례이다"[20] 라고 하여, '역'의 성립과정이 자연의 질서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약용은 여기서 '태극'이란 삼극(三極: 天·地·人)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요 50개의 시책(蓍策)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것이라 하고, '양의'란 49개의 시책을 둘로 나누어 천(天)·지(地)의 '두가지'(兩)를 형상한 것이라 한다. 또한 '사상'이란 4개씩 헤아려 사시(四時: 天·地·水·火가 四時에 배속)의 '네가지'(四)를 형상한 것이요, '팔괘'란 64괘의 내괘(內卦)나 외괘(外卦)를 이루는 여덟가지라고 한다. 따라서 그는 태극·양의·사상·팔괘란 시책을 나누고 헤아리는 명칭임이 확실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강조하고, 이와달리 『주역』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복희가 괘를 그린 방법이라 본다면 '의'(儀)나 '상'(象)이라는 두 글자를 해석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복희가 괘를 그리던 처음에 먼저 하나의 음(陰)과 하나의 양(陽)이라는 두 획을 그렸는데, 이것은 팔괘를 만드는데 이미 진정한 근본에 속하는 것이므로, 형용(容)이나 본받음(法)을 의미하는 '의'(儀)라고 이름붙인다는 것은 의리가 없다

---

20) 朱熹, 『周易本義』, '繫辭上傳', "一每生二, 自然之理也, 易者陰陽之變, 太極者, 其理也,···此數言者, 實聖人作易自然之次第."

는 것이다. 다음으로 양(陽)의 획 위에 음과 양의 획을 더하고 음의 획 위에 음과 양의 획을 더하여 두 획으로 이루어진 4개의 괘는 팔괘의 형체로서 드디어 실제로 쓰이게 되는 것이므로 형상(形)이나 흡사함(似)을 의미하는 '상'(象)이라고 이름붙일 의리가 없다는 것이다.[21] 이처럼 정약용은 태극·양의·사상·팔괘는 괘를 그려가는 역괘의 성립과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64괘가 성립한 이후에 시책(蓍策)을 나누고 헤아려 점을 치는 방법에서 둘로 나누고 넷으로 헤아리는 등에서 형상하는 바를 가리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역'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복서의 방법으로서 '역'이 지닌 근본성격을 철저하게 관철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그는 괘획에서 '효'(爻)를 '위'(位)의 의미와 구별하여, "'효'라는 것은 교차함이며, 본받음이다. 시초를 헤아려 '효'를 얻을 때 음과 양이 서로 교차하고 서로 본받는 것을 '효'라고 하니, '6효'(六爻)라는 명칭은 오직 괘를 점치는데 있는 것이다. 복희가 괘를 그릴 때는 다만 '6위'(六位)만 있었지 어찌 '6효'가 있었겠는가. 한나라때 유학자들 이래로 '위'를 '효'로 인식하여 뒤섞어 분명하게 하지 못하니 큰 오류이다"[22]라고 밝혔다. 곧 괘를 그려놓은 것으로만 말하면 초구(初九)·상륙(上六) 등

---

21) 『與全』[2], 권44, 26, '周易四箋·蓍卦傳', "太極者, 五十策之未分者也,… 兩儀者, 分而爲二, 以象兩者也(儀 容也法也), 四象者, 揲之以四, 以象四者也(象 形也似也), 八卦者 內卦外卦之或震或兌者也.…此其爲蓍策分揲之名, 確然無疑, 而說易之家, 乃以爲庖犧畫卦之法, 則儀象二字, 不可訓也, 何者, 庖犧畫卦之初, 先畫兩畫(卽一陽一陰), 是於八卦之制, 已屬眞本, 名之爲儀, 無義也(非但形容而止也), 次加四畫(卽二畫之卦), 是於八卦之體, 遂爲實用, 名之爲象, 無義也(非但倣似而止也)."

22) 『與全』[2], 권44, 4, '周易四箋·繫辭上傳', "爻也者, 交也效也, 揲蓍得爻之時, 陰與陽相交相效, 此之謂爻也, 則六爻之名, 惟蓍卦有之, 若夫庖羲畫卦之時, 只有六位, 安有六爻, 漢儒以來, 認位爲爻, 混淆不明, 大謬也."

획의 '위'(位)만 있지만, 점을 쳐서 얻어지는 획은 음·양의 획이 서로 교차하고 본받으며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효'라는 것이다. 그만큼 '효'라는 글자 하나에서도 '역'이 지닌 복서적 의미를 찾아내어 확인하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역사'(易詞)에서 복서와 의리의 문제에 대해, "문왕과 주공의 말(괘사·효사)은 그 의리가 깃들어 있지만 은미하여 드러나지 않았으나, 공자의 「단전」(彖傳)에 이르면 오로지 의리를 천명하였고, '효사'의 은미한 점은 「문언」(文言)과 「대전」(大傳: 繫辭傳)이 또 부연하고 경계하였으며, 「대상전」(大象傳)에 이르면 점치는 자에 간여하지 않고 순수하게 군자가 머물 때 살피는 용도로 삼았으니, 공자의 「십익전」에 의거하여 『역경』을 추구하면 의리를 파악할 수 있다"[23]고 하여, '역'은 복서를 주제로 하는 것이지만 의리에 대한 관심이 이미 문왕·무왕의 '괘사'나 '효사'에서도 은미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공자는 「십익전」을 통해 의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밝혔다.

3. 『주역사전』의 구성과 「독역요지」(讀易要旨)의 '역'이해

23) 『주역사전』의 편차구성은 주자의 『주역본의』와 대비시켜보면, 『주역본의』에서 책머리에 '河圖圖'에서 '卦變圖'까지 9개의 「圖目」과 '八卦取象歌'에서 '上下經卦變歌'까지 4개의 「卦歌」와 「筮儀」를 수록한 전반부와, 「상경」·「하경」의 중반부와, 「繫辭上傳」·「繫辭下傳」·「說卦傳」·「序卦傳」·「雜卦傳」을 수록한 후반부에 상응하지만, 구성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 『주역사전』의 구성체제

정약용의 『주역사전』은 그 편차를 통해서도 그의 역학적 입장이 지닌 특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주역사전』의 머리말에 해당하는 「사전소인」(四箋小引)에서 역해석의 기본방법으로 추이(推移)·물상(物象)·호체(互體)·효변(爻變)의 이른바 '역리사법'(易理四法)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그의 『주역』해석이 바로 '역리사법'을 기본강령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역사전』의 구성체계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주역사전』의 서술체제는 그의 '역'해석방법을 도표화하고 체계화하여 제시한 「괄례표」(括例表)·「독역요지」(讀易要旨)·「역례비석」(易例比釋)을 상경(30괘)의 앞에 수록하고, 「역론」(易論)·「괄례표(하)」·「역례비석(하)」를 「하경」(34괘)의 앞에 수록한 것이 서론(緖論)부분이라 한다면, 상경 30괘와 하경 34괘의 64괘를 해석한 부분이 중심부분이라 할 수 있고, 끝에 붙인 「춘추관점보주」(春秋官占補註)·「대상전」(大象傳)·「계사상전」(繫辭上傳)·「계사하전」(繫辭下傳)·시괘전(蓍卦傳)·「설괘전」(說卦傳)은 후론(後論)부분이라 할 수 있다.[24]

먼저 서론부분에서 정약용은 「괄례표」와 「역례비석」을 각각 상·하편으로 나누어 「상경」·「하경」의 앞에 나누어 수록하고 「독역요지」를 「상경」의 앞에 「역론」을 「하경」의 앞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괄례표」는 그의 '역'해석에서 기본방법인 '역리사법'을 도표로 분석하고 있는데, 「괄례표(하)」에서는 '역리사법'의 추이(推移)에 따른

24) 『與全』[2], 권37, 17, '周易四箋·讀易要旨', "文王周公之詞, 其義所寓, 隱而不彰, 微而不著, 至孔子彖傳, 則專闡義理, 其爻詞之微隱者, 文言大傳, 又推演而之戒, 至於大象傳, 則不干筮家, 而純爲居觀之用, 因傳以求經, 則義可得矣."

괘·효의 기본변화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변화형식으로서 '역'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것, 곧 상괘와 하괘를 교환하는 변화인 '교역'(交易), 6위(位)의 음·양을 모두 바꾸어 놓은 변화인 '변역'(變易), 및 괘의 형체를 전체로 뒤집어놓는 변화인 '반역'(反易)의 세가지를 도표화하여 분석한 것이다.[25] 또한 「역례비석」은 '원형리정의 사례'(元亨利貞例)에서 '정흉의 사례'(征凶例)까지 대체로 포괄적인 점사(占辭)의 용례 28종을 분류하여 해석한 것이라면, 「역례비석(하)」는 '이견대인의 사례'(利見大人例)에서 '무유리의 사례'(無攸利例)까지 대체로 구체적 행위와 연관된 점사의 용례 11종을 분류하여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역'해석 이론을 상·하로 나누어 놓은 점은 나름대로 내용상의 특성이 구분될 수 있으나, 이렇게 상·하로 나눈 것을 「상경」과 「하경」의 앞에 각각 수록하고 있는 의도를 분명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다만 「역론」을 「하경」 앞에 둔 사실에서, 「역론」은 신조선사(新朝鮮社) 간행의 활자본에는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의 시문집(詩文集: 제1집) 권11에 「역론」(1)과 「역론」(2)의 두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역론」(2)를 『주역사전』의 「하경」 앞에 「역론」이란 제목으로 중복하여 수록하고 있으며, 규장각(奎章閣)에 소장된 필사본에는 시문집에만 들어 있고, 『주역사전』에는 「역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신조선사본의 『주역사전』에 수록된 「역론」은 원래 『주역사전』과 별도로 저술된 것이지만 뒷날 『주역사전』에 편입시켜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方仁교수의 견해) 「역론」은 성인이 '역'을 지은 목적이 천명을 물어 따르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천명을 묻기 위해 점을 치는 원칙과 점을 치기 위해 '괘'를 그리게

25) 『與全』[2], 권40, 17, '周易四箋·括例表(下)', "推移正義之外, 尙有三易, 一曰交易, 二曰變易, 三曰反易,…易之爲道, 唯變所適, 三易之義, 亦時用之, 玆 開列爲表, 以備居玩, 然非所急也, 錄于下經之首, 俾不與推移正義混淆難分也."

되는 과정을 해명하고 있는 것이요, 「독역요지」는 『주역』을 읽을 때 유의해야할 '역'해석의 방법으로서 18칙을 제시한 것으로 이러한 18칙의 원칙들은 그의 '역'해석방법이 '역'의 문법을 얼마나 다각적 시야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통찰과 체계적 이해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내용상으로 보면 「역론」과 「독역요지」는 『주역사전』의 전체를 관통하는 정약용의 역학적 기본인식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심부분은 두 편으로 나누어 전반에서는 '상경'의 30괘를 해석하면서, '반괘'(反卦: 괘를 뒤집어 놓은 反易의 괘)가 없는 건(乾)·곤(坤)·이(頤)·대과(大過)·감(坎)·리(離)의 6괘를 제외한 나머지 24괘는 '정괘'(正卦)와 '반괘'(反卦)로 짝을 이루게 하여, 30괘를 제1괘에서 제18괘까지로 배열하고 있다. 또한 후반에서는 '하경'의 34괘를 해석하면서, 역시 '반괘'가 없는 중부(中孚)·소과(小過)의 2괘를 제외한 나머지 32괘를 '정괘'와 '반괘'로 짝을 이루게 하여, 34괘를 제19괘에서 제36괘까지로 배열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주역』에서 '괘'의 배열이 '정괘'와 '반괘'의 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드러내고, 이러한 배열구조에서 보면 상경이 18괘요 하경도 18괘로 맞아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 후론부분에서는 「춘추관점보주」(春秋官占輔註)·「대상전」(大象傳)·「계사상전」(繫辭上傳)·「계사하전」(繫辭下傳)·시괘전(蓍卦傳)·「설괘전」(說卦傳)의 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자의 『주역본의』에서 「상경」·「하경」의 다음에 「계사상전」·「계사하전」·「설괘전」·「서괘전」·「잡괘전」을 수록하고 있는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어 『주역사전』의 독특한 체제를 보여준다.

우선 「춘추관점보주」는 춘추시대에 복관(卜官)이 점을 쳤던 관점(官占)의 사례로 『춘추좌전』에서 17건과 『국어』(國語·周語)에서 3건을 수

집하여 주석한 것이다.[26] 『춘추좌전』에서 춘추시대의 관점이 해석된 사례를 주목한 것은 『주역』이 복서로서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점괘를 해석하는 방법을 『주역』이 아닌 문헌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증적 연구의 성과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어서 「대상전」(大象傳)은 '괘'의 형상을 해석한 것으로, '효'의 형상을 해석한 「소상전」(小象傳)과 더불어 「십익전」의 한 편이다. 그는 「대상전」을 독립시키면서, "「대상전」은 공자가 점치는 자의 「단전」이나 「상전」(小象傳) 이외에 특별히 스스로 형상을 음미하여 군자가 활용함에 도움이 되게 한 것이다.…이것(「대상전」)은 「십익」의 하나로 '괘사'나 '효사'에 간여하지 않으며 본래 마땅히 별도의 항목으로 그 자체 하나의 經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27]라고 하여, 점치는 것과 달리 형상에서 의리를 살피기 위해 공자가 별도로 지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약용은 「십익전」의 구성내용이나 체제에 대해 자신의 독자적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28] 일반적으로 「십익전」은 「단전」(上·下)과 「상전」(上·下)은 「상경」과 「하경」의 각 '괘'·'효'에 나누어 붙였고, 「문언전」은 건괘·곤괘에 나누어 붙였으며, 「계사전」(上·下)·「설괘전」·「서괘전」·「잡괘전」의 5편은 64괘의 뒤에 따로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단전」

---

26) 方仁교수는 정약용이 '효변'(爻變)해석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春秋官占의 用例들에서 얻었던 것으로 중시하고 있다. 방인, 「周易四箋 解題」(『주역사전 역주』, ??쪽.

27) 『與全』[2], 권43, 31, '周易四箋·大象傳', "大象傳者, 孔子于筮家彖象之外, 別自玩象, 以資君子之用者也,…此爲十翼之一, 而不干卦爻之辭, 本宜別行, 自爲一經."

28) 「十翼」의 구성에 관한 기존의 통설에는 「說卦」·「序卦」·「雜卦」·「文言」의 4편과 「繫辭傳」·「彖傳」·「象傳」 각 상·하편의 6편의 10편으로 보는 경우와 「象傳」 上·下편을 大象傳·小象傳으로 나누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고 지적한다.(方仁, 『주역사전 역주』, ??, ??쪽, 주592).

(상·하)·「소상전」(상·하)·「대상전」·「계사전」(상·하)·「설괘전」·「서괘전」·「잡괘전」의 10편을 「십익전」으로 삼고, 「문언전」을 「십익전」에서 제거시키고 있다. 그가 「문언」을 「십익전」에 넣지 않는 이유는 「문언」이란 『이아』(爾雅)나 『설문』(說文) 같은 고대 자서(字書)의 일종으로서 '역'의 글자 뜻을 설명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요, 공자가 태어나기 13년전(襄公 9년)에 목강(穆姜)이 「문언」의 글을 말하고 있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곧 공자가 「문언」을 인용하여 건괘·곤괘를 해석한 것을 공자가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은 오류라고 본다.[29] 따라서 그는 「십익전」을 기존의 통설과는 달리 「문언전」을 제거하고, 「계사전」 상·하와 「단전」 상·하와 「상전」(小象傳) 상·하의 6편과 「대상전」·「설괘전」·「서괘전」·「잡괘전」의 4편으로 구성된 것이라 제시한다.[30]

그는 「십익전」의 체제가 변형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전한(前漢)때의 전하(田何)가 '역'을 전수할 때는 「상경」·「하경」과 「십익전」을 12편으로 삼았는데, 전한때 비직(費直)에 이르러 비로소 「십익전」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건괘의 경전본문에 첨부하기 시작하였고, 그후 후한때 정현(鄭玄)이 다시 「단전」·「象傳」 등을 64괘의 해당 경전본문 아래에 붙였으며, 이에 「대상전」과 「소상전」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31] 여기서 그는 "오늘날 '역'을 읽는 자들이 '6효'를 나란히 배열하여 한 '괘'의 전체적 의미를 파악하려 하는 것은 이미 오류이며, 또한 「대상

29) 『輿全』[2], 권37, 36, '周易四箋·乾', "文言者, 古之字書, 若爾雅·說文之類, 而專爲易詁者也, 故孔子之生, 十三年之前(襄九年), 穆姜預說文言之詞, 斯可驗也,…盖孔子引用文言以爲易傳, 而後之儒者, 遂認爲孔子所作, 謬矣."

30) 『輿全』[2], 권44, 7, '周易四箋·繫辭下傳', "並上下彖傳, 上下象傳, 爲六翼, 唯大象傳及說卦序卦雜卦, 各自一篇, 合之爲十翼(文言者, 古之字書)."

31) 『輿全』[2], 권43, 31, '周易四箋·大象傳', "昔田何授易, 以二經十翼爲十二編, 至東萊費直, 始合十翼, 附之經文(今乾卦是也), 其後鄭玄又分彖象諸傳, 附之經下(坤已下六十三卦), 而大象傳·小象傳牽連爲一."

전」을 한 '괘'의 표제로 삼고, '단사'나 '효사'와 뒤섞어 일체를 이루니 그 폐단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별도로 그 이치를 통하게 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니, 공자가 '역'을 쓴 참 뜻이, 이로 인해 밝게 드러나기를 바랄 뿐이다"[32]라고 하여, 그가 「십익전」의 기존체제를 이렇게 과감하게 고치는 것은 공자가 「십익전」을 지은 본래의 의도와 원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 「계사상전」과 「계사하전」에서, 그는 「계사전」이 상·하로 나누어진 것은 전하(田何)가 '역'을 전수하였던 때부터 이미 그러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33] 또한 그는 「계사전」이란 말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계사'라는 말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이라 보고, 그 원래 의미를 고증하였다. 곧 그는 본래의 '계사전'이란 문왕의 '단사'(괘사)와 주공의 '효사'(상사)를 합쳐서 일컫는 '계사'에 대해 공자가 해석한 '단전'과 '상전'을 가리키는 말이요, 오늘날 통용되는 '계사전'은 공자가 『역경』의 핵심문제를 전반적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역대전'이라 일컫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 "'계사'란 원래 '단사'(彖詞: 卦詞)와 '효사'(爻詞: 象詞)이며, 주사(繇詞: 占詞)를 '괘'와 '효'의 아래에 달아놓은 것을 말한다. '단사'는 문왕이 달아놓은 것이며, '효사'는 주공이 달아놓은 것이다. 공자가 이 두 성인의 말을 취하여 깊고 오묘한 뜻을 풀이하여, '단전'(彖傳)과 '상전'(象傳)이라 이름붙이고, 각각 상·하 두 편이 되니, 「십익」 가운데 4편이 되었는데, 이것이 '계사전'이라는 것이다. 이 편(계사전)은 한 경전의 핵심적 의리를 전반적으로 논한 것이므로 『사기』(史記)에서는 이를 인용하면서 '역대전'(易大傳)이라 하였으니(한

32) 같은 곳, "今之讀易者, 排比六爻, 認作一卦之全旨, 已屬謬戾, 而又以大象傳爲一卦之標題, 與彖詞爻詞混成一體, 則其蔽滋厚矣, 玆別疏理, 以還其舊, 庶夫子用易之旨, 因亦章顯也."

33) 『與全』[2], 권44, 7, '周易四箋·繫辭下傳', "王肅·李鼎祚本, 皆分上下傳, 盖自田何授易, 已然矣."

> 대 유학자들은 흔히 '역대전'이라 일컫는다), 이 편을 '계사전'이라 일컫는 것은 아마 전수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34]

그는 「계사상전」과 「계사하전」을 서술하는 자신의 입장으로서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12벽괘'가 추이(推移)하는 의리와 '6효'가 변동(變動)하는 방법과 '역리사법'에 연관된 것만을 취하여 해석한다고 밝혔으며, 「계사전」(상·하)의 본문 가운데 어느 '괘'의 점치는 말(繇)을 논의한 것은 해당 '괘'에 옮겨서 해석하였고, 또한 점치는 방법(揲蓍)에 관한 글들은 별도로 표출시켜 「시괘전」을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다.[35] 이처럼 「계사전」 상·하편의 본문은 상당히 심한 이동을 하여, '역리사법'의 '역'해석을 위한 기본방법에 관련된 주제로 집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괘전」은 「계사상전」 가운데 점법에 관련된 부분(9-11장의 일부)을 뽑아서 해석한 것으로, "돌아보면 양한(兩漢) 이래 위서(緯書)가 크게 일어나고 잘못된 이론이 공공연하게 행해지며, 거짓됨을 이어가고 그릇됨에 익숙하여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만약 주공과 공자의 뜻에 어긋남이 있으면 감히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36]고 밝혔다. 그만큼 그의 시괘(蓍卦)방법은 한나라때 이후 기존의 방법에 오류가 누적되어 있음

---

34) 『與全』[2], 권44, 1, '周易四箋·繫辭上傳', "繫辭者, 彖詞爻詞也, 謂以繇詞繫于卦爻之下也, 彖詞, 文王之所繫也(亦名卦詞), 爻詞, 周公之所繫也(亦名象詞), 孔子取二聖之詞, 而發其淵奧, 名之曰, 彖傳·象傳, 各成二篇, 爲十翼之四, 此之謂繫辭傳也, 若此編, 則通論一經之大體, 故史記引此, 謂之易大傳(漢儒 多稱易大傳), 其稱繫辭傳者, 恐亦傳述有誤也."

35) 같은 곳, "今不敢全釋, 只就十二辟推移之義, 及六爻變動之法, 凡有關於四大義理者, 約略疏理, 其中專論一卦之繇者, 前已論釋於各卦之下, 又如揲蓍諸文, 別爲表章, 玆不疊論."

36) 『與全』[2], 권44, 15, '周易四箋·蓍卦傳', "顧自兩漢以來, 緯書大興, 謬義公行, 承訛習誤, 迄至于今, 若其有乖於周公, 孔子之義者, 不敢不辨."

을 주목하고 옛 점법을 찾아 새롭게 구성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설괘전」에서는 "역사(易詞)에서 형상을 취함은 모두 「설괘전」에 근거한 것이니, 「설괘전」을 읽지 않고서는 한 글자도 해석할 수 없다. 열쇠를 내버려두고 그 문을 열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기가 그지없는 짓이다"[37]라고 하여, 「설괘전」이 '역'해석에서 열쇠의 역할을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는 한대 학자들이 '6효'가 변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쓸데없는 천착만 일삼았던 폐단과, 왕필(王弼)이 물상(物象)을 내버리고 「설괘전」을 쓰지 않았던 과오와, 구양수(歐陽修)가 「설괘전」을 공자의 글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순구가(荀九家: 京房·馬融·鄭玄·宋衷·虞翻·陸績·姚信·翟子玄·荀爽)의 견해를 검토하여 바른 것은 받아들이고 그릇된 것은 바로잡아 「설괘전」을 해석하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2) 「독역요지」(讀易要旨) 18칙의 '역' 이해

「독역요지」의 18칙은 정약용이 『주역』을 읽는데 요구되는 기본요령을 제시한 것으로서, 『주역』의 서술이 지니는 여러 가지 특징을 집약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독역요지」를 통해 그가 제시한 '역'의 구조적 특성과 '역'에 대한 접근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8칙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해하는데 편하도록 몇가지 주제로 다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물상'(物象)에 관련된 항목으로 ①추상(抽象)·②해사(該事)·③존

37) 『與全』[2], 권44, 28, '周易四箋·說卦傳', "易詞取象, 皆本說卦, 不讀說卦, 卽一字不可解, 棄鑰匙而求啓門 愚之甚矣."

질(存質)·⑧용졸(用拙)·⑩첩현(疊現)·⑫영물(詠物)의 여섯 항목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그는 '역사'(易詞)가 형상을 드러내지만 성인은 '역'을 읽는 자가 형상에 사로잡히는 것을 우려하여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또한 형상과 점괘가 연결되는 원칙과 형상을 제시하면서 감흥이나 비유의 표현법을 쓰고 있음을 제시한다.

①추상(抽象): '역'이 점을 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괘' 하나 '효' 하나가 각각 온갖 물상을 갖추고 있지만, 문왕과 주공은 온갖 형상 가운데 한 가지 형상만을 추출하여 '주사'(繇詞) 곧 점괘의 글을 지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괘'와 '효'는 온갖 사물에 부응할 수 있지만 그 '주사'는 온갖 사물을 모두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乾)괘 初九의 "잠복한 용이니 쓰지 말라"(潛龍勿用)라는 '주사'는 군자가 나아가고 물러서는(出處進退) 행동의 결정에서 길·흉을 점치는데는 부합하지만, 혼인이나 제사 등을 점치는데는 적용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②해사(該事): 성인이 하나의 형상을 추출(抽象)했을 때 사람들이 그 하나의 형상에 집착하여 변통할줄 모르는 것을 염려하여 하나의 '주사' 속에 몇 가지 일을 섞어서 말하여, 논의할 수 있는 형상이 그 몇가지에 한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준(屯)괘 六二에서 "말을 탔다가 내린다"(乘馬班如)고 언급한 것은 여자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재난의 점괘요, "도적이 아니라 혼인하자는 것"(匪寇婚媾)이라는 언급은 이웃 나라의 우환에 대비하는 점괘요, "십년이 되어 자식을 낳는다"(十年乃字)고 한 것은 부인이 자식을 낳고 기르는 점괘로서, 이 세 가지 일들은 제각기 이루어진 글로서 문맥이 서로 연속되지 않으니, 경전이나 역사서처럼 읽어서는 통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③존질(存質): 성인이 몇가지 형상을 섞어서 논하고 나서도 배우는 자가 그 몇가지 형상에 집착하여 변통할줄 모르는 것을 염려하여 '괘

사'에서 '괘'의 덕을 드러내어 그 바탕을 보존하거나 '효사'에서 길·흉만 드러내고 구체적인 사물을 논하지 않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괘의 "원·형·리·정"(元亨利貞), 대유(大有)괘의 "원·형"(元亨), 대장(大壯)괘의 "리·정"(利貞) 등이나, '효사'에서 항(恒)괘 九二의 "뉘우침이 없다"(悔亡), 해(解)괘 初六의 "허물이 없다"(无咎) 등이다.

⑧'용졸'(用拙): '역사'(易詞)에서 형상을 취함이 때로는 편협하여 졸열하고 서투르게 보이는 것은 성인이 평이하거나 교묘히 부합하는 사물을 버려두고, 별도로 졸열한 형상을 찾아서 '역사'를 지어 점치는 사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賁)괘 六四의 "도적이 아니라 혼인하자는 것"(匪寇婚媾)이라 함은 대장(大壯; 大壯에서 離로 推移됨)괘의 상괘인 장남(長男: 震)을 취하여 리(離; 賁 六四가 爻變하여 離가 됨)괘 중녀(中女)와 짝지운 것이 졸열함을 사용한 경우라 한다.

⑩첩현(疊現): 한 괘와 다른 괘가 물상이 같은 경우 그 점괘의 글(繇詞)을 그대로 거듭 사용하여, 같은 물상을 갖춘 '괘'나 '효'는 그 점괘도 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축(小畜)괘의 '단사'(괘사)와 소과(小過)괘 六五의 '효사'는 모두 감(坎)의 비(雨)를 이루지 못하여 "구름은 빽빽하나 비가 오지 않는다"(密雲不雨)는 등이다.

⑫영물(詠物): '역사'(易詞)에는 형상(象)을 말한 것과 점괘(占)를 말한 것이 있는데, 점괘는 특정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다른 일에는 통할 수 없지만, 형상은 은미함을 표출하는 것으로서 모든 일에 통하는 형상이 되므로, 사물을 읊고 일을 비유함은 마치 시(詩)에서 비유(比)와 감흥(興)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괘 九五의 "날아오르는 용이 하늘에 있다"(飛龍在天)와 중부(中孚)괘 九二의 "우는 학이 그늘에 있다"(鳴鶴在陰) 등은 감흥(興)의 문체이고, 대장(大壯)괘 九三의 "숫양이 울타리를 받았다"(羝羊觸藩) 등은 통용되는 형상이요,

려(旅)괘 上九의 "소를 교역에서 잃었다"(喪牛于易) 등의 경우는 이미 형상이 되지만 점괘도 되는 것이라 한다.

다음으로 '괘'·'효'에 관련된 항목으로는 ④고명(顧名)·⑬건유(建維)·⑭변위(辨位)·⑪비덕(比德)·⑮우의(寓義)의 다섯 항목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그는 '괘'의 명칭을 살피며, 음·양의 변동 속에 기준의 '괘'를 확인하고, '괘' 안에서 '효'의 자리에 따른 의미를 인식하며, '괘'·'효'에 깃들어 있는 덕과 의리를 음미하도록 요구한다.

④고명(顧名): '괘'의 이름을 붙일때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팔괘'의 본래 덕을 따르거나(坎·離 등), 음·양이 성장하고 소멸하는 형세를 따르거나(復·大壯 등), '추이'(推移)하여 오고 가는 사정에 따르거나(訟괘의 명칭이 中孚괘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경우 등), 직접 물상을 취하거나(井·鼎 등), '괘'에 의거하여 형상을 뽑아내어 우연하게 이름붙인 것(家人·歸妹 등)으로, '괘'의 이름이 붙여지는 다섯 가지 유형을 분석하면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살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⑬건유(建維): 건(乾)·곤(坤)·감(坎)·리(离)는 '역'의 네가지 기준(四維)으로, 64괘의 '양'획은 '건'에 근본하고, '음'획은 '곤'에 근본하며, 64괘의 '상괘'(4·5·6; 偶奇偶)는 모두 감(坎)에 자리잡고 '하괘'(1·2·3; 奇偶奇)는 모두 리(離)에 자리잡고 있어서, '역'의 근본이 음·양의 오르내림을 벗어나지 않으니 건과 곤을 본체로 삼고, 그 점괘는 반드시 형(亨; 離)과 정(貞; 坎)의 두 글자로서 강령을 세워 감(坎)·리(離)를 살핀다는 것이다.

⑭변위(辨位): '6효'의 자리(位)에 대한 명칭으로서 네가지를 분별한다. 곧 1·2는 땅(地)이요, 3·4는 사람(人)이요, 5·6은 하늘(天)인 '삼재'의 자리(三才之位)가 있고, 1·3·5는 양(陽)이요 강(剛)이며, 2·4·6은 음(陰)이요 유(柔)인 '2기'의 자리(二氣之位)가 있으며, 1·2는 백성(民)이요, 3·4

는 신하(臣)요, 5는 임금(君)이요, 6은 하늘(天)인 '귀천'의 자리(貴賤之位)가 있고, 1·2·3은 나(我)요, 4·5·6은 상대(敵)인 '내외'의 자리(內外之位)가 있다고 한다. 이 자리에 따라 물상이 같아도 점괘가 달라질 수 있고, 점괘가 같아도 길·흉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한 '괘'에서 '효'의 자리를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⑪비덕(比德): 성인은 한 '괘'에서 '효'가 변한 다음에도 그 본래 '괘'의 성질을 씨앗으로 뿌려두는(播性) 가운데 사물을 아울러 가리키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물에 얽매어 여러 사정을 거느릴 수 없게되므로, 여섯 '효'를 비교하여 두 글자의 '효사'로서 '괘'의 덕을 나타내기만 하고 사물을 거론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태(兌)괘 初九의 '화태'(和兌), 九二의 '부태'(孚兌), 六三의 '래태'(來兌), 九四의 '상태'(商兌), 上六의 '인태'(引兌)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⑮우의(寓義): '역'은 복서가 위주이지만 '12벽괘'(辟卦)의 음·양이 나아가고 물러나며 성장하고 소멸하는 형세를 살피고, '50연괘'(衍卦)의 오르내리고 오고 가는 형상을 음미하여 그 사이에 의리를 깃들게 하였던 것으로, 문왕·주공의 '괘사'나 '효사'에는 의리가 은미하여 드러나지 않았으나, 공자에 이르러 의리가 뚜렷하게 밝혀졌다는 것이다. 특히 「대상전」에서는 점치는 것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군자가 머물 때 의리를 살피는데 쓰도록 한 것이라 본다.

세번째로 '효변'(爻變)에 관련된 항목으로 ⑤파성(播性)·⑥유동(留動)·⑦결본(缺本)·⑨쌍소(雙溯)의 네 항목을 들 수 있다. '효변'을 통해 '괘'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본괘'의 성질을 남겨두기도 하고 '괘주'(卦主)가 되는 '효'의 본래 형상을 남겨두어 변동함과 불변함을 병행시키는 사실과 '본괘'의 성질을 남겨둠과 제거함을 병행시키기도 하는 사실을 보여주며, '효변'에 따라 생기는 '지괘'(之卦: 變卦)의 두 '모괘'(母卦)

가 지닌 물상까지 소급하여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한다.

⑤'파성'(播性): 한 '괘'에서 '효'가 변하면 본래의 괘(本卦)와 변한 괘(之卦)는 물상과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만 그 성질(性氣)은 모두 '본괘'(本卦)를 위주로 하고 '지괘'(之卦)의 물상만을 적용하지 않으니, '효사'에는 반드시 '본괘'의 성질이 씨앗처럼 뿌려져 있어서 그 바탕을 돌아보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본괘'가 승(升)괘인 경우, 六五효가 '효변'한 정(井)괘나 上六효가 '효변'한 고(蠱)괘로 변해가도 승(升)괘의 六五효와 上六효는 모두 위로 올라가는 '본괘'의 형상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⑥'유동'(留動): 한 획이 변동하면 '괘'전체가 변하게 되는데, 성인이 '효사'를 지을 때 변한 형상을 취하였지만, '괘'의 주체가 되는 '효'에서는 그 변동을 유보하여, 그 변함를 쫓지 않고 본래 형상만을 이용함으로써 그 획이 '괘'의 주체가 됨을 밝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師)괘 九二의 "임금이 총애하는 명령을 세 번이나 내렸다"(王三錫命) 등은 효변의 형상을 취하지 않고 본래의 형상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⑦'결본'(缺本): 성인은 '본괘'의 성질을 남겨두지만, 그 성질에 집착하여 변통할 줄 모르는 것을 염려하여, '6효' 가운데 한두 '효사'에 본래 성질을 빼놓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몽(蒙)괘 六三에서 몽(蒙)을 언급하지 않고, 송(訟)괘 六三에서 송(訟)을 말하지 않는 등을 가리킨다.

⑨쌍소(雙溯): 비(否)괘와 태(泰)괘에서 나온 3양·3음의 '괘'가 아니면 모두 2개의 모괘(母卦)를 갖게 되는데, 이 경우 그 '괘사'는 반드시 그 근원을 양쪽으로 소급하고 그 형상을 두가지로 드러내며, 그 '효사'도 '지괘'(之卦)의 근본을 양쪽으로 소급하여 결합시켜 '효사'를 짓는 것으로, '역'의 방법이 '추이'(推移)를 벗어나지 않음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

이다. 예를 들면, 건괘 九四의 "혹 뛰어오르나 연못에 있다"(或躍在淵)는 말은 건괘 九四가 효변하여 소축(小畜)괘가 되는데, 소축괘의 '모괘'인 구(姤)괘에서 '뛰어오른다'(躍)는 말이 왔고, 소축괘의 '모괘'인 쾌(夬)괘에서 '연못'(淵)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본다.

네번째로 점괘(占)에 관련된 항목으로 ⑯고점(考占)의 한 항목을 들 수 있다. 점괘를 살핀다는 것은 점괘가 의리가 같아도 달라질 수 있고 형상이 같아도 달라질 수 있고 만남의 주체나 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변성을 유의하여 살펴야 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⑯고점(考占): '괘'·'효'의 형상에는 본래 정해진 길·흉이 없으니, 점을 치는 일에 따라 길·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곧 여자를 얻음에 '길'한 경우라도 나라를 정벌함에는 '흉'할 수 있고, 군자가 만나서 '길'한 경우라도 소인에게는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하여, '역사'(易詞)에서 길·흉을 말한 것이 모든 점에서 통용되는 점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준(屯)괘의 '단사'(彖詞)에서는 원정(遠征)의 점괘로 "가지 말라"(勿用有攸往)하고, 임금을 추대하는 점괘로 "제후를 세움이 이롭다"(利建侯)고 하여 '괘'의 형상은 동일하지만 길·흉이 다름을 지적한다.

끝으로 '글자'나 '협운'에 관련된 항목으로 ⑰인자(認字)·⑱찰운(察韻)의 두 항목을 들 수 있다. 글자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고, 문장 속의 글자나 구절 사이에 협운을 찾을 수 있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⑰인자(認字): 『역경』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글자의 뜻을 파악해야 하며, 「서괘전」(序卦傳)과 「잡괘전」(雜卦傳)에서는 '괘'의 뜻을 말한 것이지 글자의 뜻이 아닌데, 후세의 자서(字書)에서는 글자의 뜻으로 삼아 기록한 것은 큰 오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亨)자는 '감

응하여 통달한다'(感而遂通)는 뜻이지만, '형'자는 본래 리(離: 火)의 덕으로 '음식을 삶는다'(烹飪)는 뜻의 '팽'(烹)자가 '형'자와 통할 수 있고, '음식을 삶는다'는 것은 잔치나 제사 곧 연향(燕享)을 위한 것이므로 '연향'의 '향'(享)자도 '형'자와 통한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음을 지적한다.

⑱찰운(察韻): '역사'(易詞)에서 협운(叶韻)의 법칙은 가장 엄격하고 정밀하지만, 그 율격이 자주 변하여 찾아내기가 가장 어려우며, 협운을 잘 살펴야 구(句)를 끊는데 착오가 없을 것이고 경전의 취지도 밝아진다는 것이다. 그는 협운의 경우로 하나의 점괘(繇詞)안에 한두 글자가 바로 협운이 되는 경우, 두세 구절이 협운이 되는 경우, 두세 가지 점괘가 서로 이어져 협운이 되는 경우, '6효'가 모두 이어져 협운이 되는 경우, 서너 개의 점괘가 중첩된 글로 이어져 협운이 되는 경우, '괘사'와 '효사'가 이어져 협운이 되는 경우, 서너 개의 점괘 사이에 윗구절과 윗구절, 또는 아랫구절과 아랫구절이 협운이 되는 경우, 하나의 점괘 안에 여러 구절에서 문채나고 견실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서로 협운이 되는 경우 등 9가지를 들고 있다.

이처럼 그는 「독역요지」 18칙을 통해 '역'을 읽는데 요구되는 방법과 원칙을 여러 측면에서 제시함으로써, 복잡하게 뒤얽히고 은밀하게 감추어지고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역'을 해석함에서, '역'에 내재된 논리와 질서를 따라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해석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의적 천착이나 임의적 편견을 극복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4. '역리사법'(易理四法)과 '역'해석의 방법

1) '역리사법'(易理四法: 推移 · 物象 · 互體 · 爻變)의 '역' 해석

정약용은 『주역사전』의 첫머리에 붙인 「사전소인」(四箋小引)에서 '역'해석의 기본방법으로 추이(推移)·물상(物象)·호체(互體)·효변(爻變)의 '역리사법'(易理四法)을 제시하여, '역'이 구성되고 '역사'(易詞)가 지어지는 기본원리를 이루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또한 그는 「상경」 앞에 붙인 「괄례표」(括例表)에서도 '역리사법'의 사례를 도표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역'해석이 '역리사법'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⑴ '추이'(推移)--괘의 변동원리

그는 '추이'를 『주역본의』의 「괘변도」(卦變圖)에서 주자가 제시한 '괘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한다. 곧 동지(11월)에 하나의 '양'이 처음 생겨나는 형상의 복(復)괘에서 시작하여 '양'이 하나씩 자라가 임(臨)→태(泰)→대장(大壯)→쾌(夬)를 거쳐 건(乾)에 이르러 6'양'의 괘가 되고, 하지(5월)에 하나의 '음'이 처음 생겨나는 형상의 구(姤)괘에서 시작하여 '음'이 하나씩 자라가 둔(遯)→비(否)→관(觀)→박(剝)을 거쳐 곤(坤)에 이르러 6'음'의 괘가 되는 괘의 변화과정이 '추이'이다. 이렇게 '추이'로 이루어지는 12괘가 '12벽괘(辟卦)'로 사시(四時: 12월)에 상응하는 것이요, 여기에 중부(中孚)괘는 '리'(離: 兼卦로 大離)요 '일'(日)이며, 소과(小過)는 '감'(坎: 兼卦로 大坎)이요 '월'(月)로서 윤달이 되니, 중부괘와 소과괘의 두 괘는 5년에 두 번 드는 윤달에 상응하는 '재윤괘'(再閏卦)가 된다는 것이다.[38] 이렇게 음·양이 자라고 소멸되는(陰陽消息) 과정에

38) 『與全』[2], 권37, 2, '周易四箋·括例表', "推移者何也, 冬至一陽始生, 其卦爲復,

따라 ‘추이’하면서 ‘14벽괘’가 이루어진다. 그는 이러한 ‘추이’의 과정은 ‘8괘’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서 ‘양’이 자라는 과정의 진(震)·태(兌)·건(乾)과 ‘음’이 자라는 과정의 손(巽)·간(艮)·곤(坤)의 6‘괘’는 1‘괘’로 두달씩 해당시키면 사시(12월)에 상응하고, 음·양의 소멸과 성장이 없는 감(坎)·리(離)는 재윤(再閏)에 상응하는 것으로, ‘14벽괘’의 ‘추이’는 ‘8괘’에 근본이 갖추어져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39]

그는 ‘12벽괘’와 ‘재윤괘’를 합쳐 ‘14벽괘’의 이론을 정립하였으며, ‘14벽괘’ 가운데 건괘·곤괘를 제외한 나머지 12‘벽괘’에서 강(剛: 陽)과 유(柔: 陰)를 나누고 펼쳐서 ‘50연괘(衍卦)’로 전개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의 ‘추이’이다.[40] ‘12벽괘’에서 ‘50연괘’가 전개되어나온다는 것은 정약용에 의해 제기된 ‘역’형성의 기본원리인데, 여기에 예외적인 경우가 제기된다. 곧 ‘재윤괘’로서 ‘12벽괘’에 속하는 중부(中孚)괘와 소과(小過)괘는 ‘50연괘’에 속하는 감(坎)괘와 리(離)괘로부터 변한다는 사실이다. 이에대해 그는 “‘중부’괘는 ‘리’(離)괘로써 변하고 ‘소과’괘는 ‘감’(坎)괘로써 변하는데 이르러서는 이는 특별히 비상한 사례로서, 그 정밀한 의리와 오묘한 뜻은 말로써 전달할 수 없다”[41]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爲臨, 爲泰, 爲大壯, 爲夬, 以至於乾, 則六陽乃成, 夏至一陰始生, 其卦爲姤, 爲遯, 爲否, 又爲觀, 爲剝, 以至於坤, 則六陰乃成, 此所謂四時之卦也(一卦 配一月), 小過者, 大坎也, 中孚者, 大离也, 坎月离日, 積奇爲閏(月與日, 取積分, 以爲閏), 此所謂再閏之卦也.”

39) 『與全』[2], 권37, 3, ‘周易四箋·括例表’, “十二辟卦之進退消長, 其本已著於八卦, 每以一卦當二月, 亦四時也,…十四辟卦之中, 唯小過中孚不受消長, 八卦之中, 唯坎離不受消長, 蓋其卦形中正无所始終, 其於四時之序, 无所當焉, 大傳所云, 五歲再閏者, 小過中孚, 以坎離爲本也.”

40) 『與全』[2], 권37, 2, ‘周易四箋·括例表’, “今擬除乾坤二卦, 別取再閏, 以充十二辟卦, 十二辟卦, 分其剛柔, 衍之爲五十衍卦(卽羣分之卦), 此所謂大衍之數五十, 此之謂推移也.”

41) 『與全』[2], 권46, 19, ‘易學緖言’, “至於中孚之以離變, 小過之以坎變, 此特特非

‘벽괘’가 거꾸러 ‘연괘’에서 변하는 ‘중부’괘와 ‘소과’괘의 경우를 특수한 비정상적 사례로 인정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밀한 의리와 오묘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약용의 서술은 논리적 비약이지만 그 비약의 논리는 우주의 신비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方仁교수의 견해) 이렇게 ‘14벽괘’와 ‘50연괘’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64괘이니, ‘역’의 64괘는 ‘추이’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양’이 하나인 복(復)괘의 初九나 박(剝)괘의 上九가 ‘추이’하여 九二·九三·九四·九五로 가는 지괘(之卦: 變卦)로서 사(師)·겸(謙)·예(豫)·비(比)의 괘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양’하나인(一陽) 괘가 ‘추이’하는 것처럼 ‘음’과 ‘양’이 하나거나 둘이거나 셋인 괘들이 ‘추이’하면 ‘50연괘’가 성립하는 것이다.[42]

‘14벽괘’와 ‘50연괘’로 이루어진 64괘는 모두가 ‘추이’의 변화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는 “그 ‘괘’의 실체를 논하면 64괘가 각각 스스로 모양을 이루고 있지만, 그 ‘괘’의 형상을 말하면 64괘가 다른 괘에서 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을 ‘역’이라 한다”[43]라고 하여, ‘추이’의 변화가 ‘역’이라는 명칭의 본질적 조건임을 확인한다. 또한 그는 ‘추이’의 방법은 순상(荀爽)·우번(虞翻) 등 한나라때 유학자들이 모두 주장하였던 것으로 일관하게 계승되어왔으며, 주자의 「괘변도」 역시 ‘추이’에 근본하는 것임을 지적한다.[44] 나아가 「계사하전」에서 복희가

常之例, 其精義妙旨, 不可以言傳也.”

42) 방인은 ‘辟卦’와 ‘衍卦’의 성격으로서, ‘辟卦’는 자연의 순환적 세력을 卦象으로 표현한 것이며, ‘衍卦’는 순환적 자연력에 의해 영향받아 형성되는 人間事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卦象으로, 辟卦는 天道의 運行을 상징하며, 衍卦는 人事의 變遷을 상징한다고 지적하였다. 方仁, 『주역사전역주』, ???쪽.

43) 『與全』[2], 권37, 6, ‘周易四箋·括例表’, “論其體, 則六十四卦, 各自成形, 語其象, 則六十四卦, 無不受變於他卦, 此之謂易.”

44) 같은 곳, “荀爽虞翻之等, 皆主推移, 歷世相承, 未有岐貳, 朱子卦變圖, 蓋有所

노끈으로 그물을 만든 것은 리(離)괘의 형상을 취한 것이고, 신농이 나무로 보습과 쟁기를 만든 것은 익(益)괘의 형상을 취한 것이고, 시장을 열어 재물을 교역하게 한 것은 서합(噬嗑)괘의 형상을 취한 것이라는 언급에 대해, 그는 익(益)괘가 비(否)괘에서 '추이'된 것이요, 서합(噬嗑)괘도 비(否)괘에서 '추이'된 것으로서 '괘'의 형상을 해석한다. 이에 따라 그는 "옛 유학자들이 '12벽괘'의 '추이'하는 방법이 문왕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오직 『주역』에만 '추이'의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복희·신농·요·순이 도구를 제작함에 형상을 숭상한 것은 역시 '추이'의 방법을 썼으니, 반드시 그 방법은 예로부터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의 말씀이 이와 같았다"[45]라고 하여, '추이'의 방법이 문왕 이후에 성립된 것이 아니라, '역'의 발생과 동시에 있었던 것으로서 '역'의 근원적 원리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건(乾)괘 단전(彖傳)에서 "'건'의 도가 변화하여 각각 성명을 바르게 한다"(乾道變化, 各正性命)는 구절에 대해서도, 12벽괘에서 '건'·'곤'을 제외한 나머지 10'벽괘'(乾에서 推移되는 姤·遯·否·觀·剝과 坤에서 推移되는 復·臨·泰·大壯·夬)를 사물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아, "천도(天道)가 변천함으로써 만물을 조화하고, 만물이 융성하여 각각 그 성명을 받으니, 이것이 그 형상이다"[46]라고 하여, 12벽괘의 '추이'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本."

45) 『與全』[2], 권44, 9, '周易四箋·繫辭下傳', "先儒謂十二辟推移之法, 始於文王, 故唯周易有此法, 然羲農堯舜之制器尙象, 仍用推移之法, 必其法自古同然, 故孔子之言如是也."

46) 『與全』[2], 권37, 37, '周易四箋·乾', "天道變遷, 以化萬物, 而萬物芸芸, 各受性命, 此其象也."

⑵ '물상'(物象)--사물의 형상에 비겨봄

정약용은 '물상'을 「설괘전」에서 말하는 건(乾)이 말(馬)이요, 곤(坤)이 소(牛)요, 감(坎)이 돼지(豕)요, 리(離)가 꿩(雉)이라 하는 등 '괘'의 덕으로 사물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어느 '괘'가 어떤 사물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형용에 비긴 것일 뿐이요, 이렇게 어떤 사물의 형용에 비겨보아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형상(象)이요 물상(物象)이라는 것이다.[47] 그는 복희가 천·지와 인·물의 형상을 취하여 '괘'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문왕과 주공이 물상을 취하여 역사(易詞)를 지었음을 강조하여, "문왕과 주공이 역사(易詞)를 지어갈때 한 글자 한 문장에서도 모두 물상을 취했으니, 「설괘전」을 버려두고 '역'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육률(六律)을 버려두고 악곡을 짓고자 하는 것과 같다"[48]고 밝혔다. 이처럼 '역'은 한 글자 한 구절에 물상이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물상을 서술한 「설괘전」은 '역'이해에 필수적 조건임을 역설하였다.

그는 물상을 취하지 않으면 괘가 지어질 수 없고 소용도 없다고 하여, 복희가 팔괘를 그릴때부터 '설괘'(說卦)가 있었던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설괘'가 공자에 의해 지어졌다는 옛 유학자들의 견해에 반대하면서, 「설괘전」에서 공자의 손에 의해 지어진 것은 '설괘'의 머리말(序詞)에 해당하는 부분(「설괘전」의 1장에서 3장까지와 5장2절에서 6장까지)이라 보는 독자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49] 또한 그는 왕필의

47) 『與全』[2], 권44, 5, '周易四箋·繫辭上傳', "坎䷜艮震, 非耳目手足, 擬諸其形容而已, 乾坤兌巽, 非馬牛羊鷄, 擬諸其形容而已, 此之謂象, 象者似也."

48) 『與全』[2], 권37, 2, '周易四箋·括例表', "文王周公之撰次易詞, 其一字一文, 皆取物象, 舍說卦而求解易, 猶舍六律而求制樂."

49) 『與全』[2], 권37, 7, '周易四箋·括例表', "八卦始畫之初, 說卦並興, 先儒謂說卦爲孔子所作, 非深密體究之論也, 不取物象, 則八卦元不必作(徒卦無所用), 其作於

‘역’해석에서 ‘물상’을 소홀히 하였던 문제점을 비판한 주자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면서, “주자의 말이 엄정하다. 무릇 10‘벽괘’가 ‘추이’하지 않으면 ‘물상’이 부합하지 않고, ‘6효’가 변동하지 않으면 ‘물상’이 부합하지 않으며, ‘호체’가 쓰이지 않으면 ‘물상’이 부합하지 않는다. 순구가(荀九家)의 ‘역’해석은 ‘6효’가 변하지 않으므로 비록 여러 방법들이 갖추어져 있지만 ‘물상’이 부합하지 않으니, 이에 왕필과 한강백(韓康伯)이 ‘물상’에 따르지 않고 노장(老莊)의 취지를 전적으로 채용하여, 여러 방법들이 모두 폐기되고 「설괘전」도 수용하지 않게 되었다”[50]고 언급한다. 이처럼 그는 ‘역리사법’에서 ‘추이’·‘호체’·‘효변’의 방법들도 결국 ‘물상’과 부합시키기 위한 해석방법임을 확인하고, ‘물상’과 부합시키는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왕필 등에 의해 ‘물상’을 설명한 「설괘전」을 수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역’해석의 방법들이 모두 폐지되고 말았던 것이라 보았다.

그는 물상과 연관되어 괘의 방위에 대해 검토하면서, “「설괘전」에서 말한 방위의 순서는 요·순의 시대에도 바뀜이 없었다.…「설괘」라는 글이 앞 시대부터 본래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리(离)가 동쪽이고 감(坎)이 서쪽이라는 설은 옛 경전에 근거가 없다”[51]고 언급한다. 곧 「설괘」가 복희 이래로 처음부터 있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설괘전」에서 제시된 괘의 방위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며, 소강절 이후 복희팔괘도(伏羲

孔子之手者, 說卦之序詞也, ‘昔者聖人之作易也, 幽贊於神明而生蓍’, 止‘易 逆數也’, 此孔子傳文也, 又自‘萬物出乎震’, 止‘旣成萬物也’, 此孔子傳文也.”

50) 『與全』[2], 권44, 14, ‘周易四箋·繫辭下傳’, “朱子之說, 嚴矣, 大抵十辟不推, 則物象不合, 六爻不變, 則物象不合, 互體不用, 則物象不合, 而九家之易, 六爻不變, 故諸法雖備, 而物象不合, 於是王輔嗣韓康伯不以物象, 而全用老莊之旨, 諸法悉廢, 而說卦亦不收矣.”

51) 『與全』[2], 권37, 7, ‘周易四箋·括例表’, “說卦方位之序, 唐虞之所不易,…可見說卦之書, 自前世而固有也, 离東坎西之說, 於古經無據.”

八卦圖)를 제시하여 문왕팔괘도(文王八卦圖)와 대비시켜 선천도(先天圖)와 후천도(後天)로 구별함으로써 괘의 방위를 두 가지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복희팔괘도' 내지 '선천팔괘도'를 경전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곧 그는 "소강절의 「선천도」는 옛 경전을 상고해 보아도 근거가 없으니, 단지 '건'과 '곤'을 두 모서리(서북과 서남)에 두는 것이 체면을 손상한다고 염려하여 그 자리를 상하로 바로잡았을 뿐이다. 그러나 '팔괘'가 물상을 취함은 본래 구애함이 없다.…문왕의 '괘'방위는 복희에게서 받은 것인데, 누가 과연 복희 때에 이러한 '선천'의 방위가 있다는 것을 보았겠는가"[52]라고 하여, '복희괘'(선천)와 '문왕괘'(후천)에 괘의 방위가 달라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선천팔괘'의 방위를 「설괘전」에 근거하여 설명하려는 견해도 확고하게 거부하였다.

⑶ '호체'(互體)--괘 속에서 괘를 찾아냄

여섯 획이 이어져 있는 중괘(重卦)에서는 세 획으로된 단괘(單卦)로서 1·2·3획의 하괘(下卦: 內卦)와 4·5·6획의 상괘(上卦: 外卦)가 포개진 것으로 보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와더불어 2·3·4획의 하호(下互: 內互)와 3·4·5획의 상호(上互: 外互)를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상호'괘와 '하호'괘로 이루어진 하나의 새로운 괘를 얻는 것을 '호체'라 한다. 예를 들면 '준'(屯-水雷)괘의 '하호'는 곤(坤)이요 '상호'는 간(艮)이니 '준'괘의 호체로서 '박'(剝-山地)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53]

---

52) 『與全』[2], 권44, 31, '周易四箋·說卦傳', "邵堯夫先天圖, 稽之古典, 未有援據, 特以乾坤之爲兩維, 恐損體面, 故正其位於上下耳, 然八卦取象, 本不拘滯,…文王卦位, 受之伏羲, 孰見伏羲之時, 果有此先天方位耶."

53) 정약용은 '양호작괘표'(兩互作卦表)를 만들어 두 '호괘'로 만들어지는 괘는 단지 16개(乾·坤·大過·頤·復·剝·姤·夬·解·蹇·家人·睽·歸妹·漸·旣濟·未濟)로 64괘

그는 두 '호괘'(上互와 下互)로 '호체'를 취하여 괘를 만드는 이유를 "성인이 백성의 이용을 이끌어주는 것이요, 또한 백성의 사특함을 금지하는 것이다"[54]라고 하여, 실질적 용도가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면 혼인하는 집안에서 점을 쳐서 태(泰)괘가 나왔을때, '태'괘에는 혼인의 형상이 없지만 두 '호괘'로 괘를 만들면 귀매(歸妹)괘가 이루어지니, 백성들이 그 점괘를 쓰는데 통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정당하지 못한 일로 점을 쳤는데 길(吉)한 괘가 나오게 되면, 두 '호괘'로 새로운 괘를 만들어 불길한 징조를 알고서 경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역사(易詞)가 모두 '호체'를 쓰고 있으며, 춘추시대의 관점(官占)에서도 모두 '호체'를 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러나 역학의 전개과정에서 '호체'에 대한 논란으로 한나라때 순구가(荀九家)들은 '호체'를 인정하였지만 진(晉)나라때 종회(鍾會)가 「역무호체론」(易無互卦論)을 지어 '호체'를 부정하고, 왕필(王弼)이 이에 호응하면서 '역'에서 '호체론'이 없어지게 되었던 사실과, 이에비해 주자를 비롯하여 송나라때 홍매(洪邁)나 원나라때 호병문(胡炳文)도 '호체'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들고 있다.[55]

나아가 그는 '호체'의 응용된 형식으로 ①'대체'(大體: 大互), ②'겸체'(兼體: 兼互), ③'도체'(倒體: 倒互), ④'복체'(伏體: 位伏), 및 ⑤'반합'(牉合)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56]

가운데 4괘씩 동일한 '호체'의 괘를 만들게 되는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輿全』[2], 권37, 9, '周易四箋·括例表')

54) 『輿全』[2], 권37, 11, '周易四箋·括例表', "兩互作卦, 聖人所以前民用也, 亦所以禁民邪也."

55) 『輿全』[2], 권37, 10, '周易四箋·括例表', "易詞皆用互體, 故春秋官占皆論互體, 至晋鍾會著無互卦論, 以譏九家, 王弼 從而和之, 此互體之所以廢也, 朱子曰, 互體不可廢, 胡炳文·洪邁, 亦以互體爲不可廢."

56) 『輿全』[2], 권37, 10-11, '周易四箋·括例表'.

①'대체'(大體) 곧 '대호'(大互)는 '호체'를 크게 보는 것으로 오직 감(坎)과 리(离)만 취한다고 한다. 그는 둘째 형(丁若銓)의 견해를 받아들여 '12벽괘'는 각 괘 속에 '건'이나 '곤'을 지녀 음·양이 모여 있는(類聚) 경우이고, '50연괘'는 괘의 양쪽(1·6)이 '양'이면 속에 '음'이 있어서 리(離)로 볼 수 있고 괘의 양쪽이 '음'이면 속에 '양'이 있어서 감(坎)으로 볼 수 있어서 나누어진 것(群分)이라는 것이다. 곧 '대체'는 '50연괘'에서 보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손(巽)괘는 1·2·3·4획이 대감(大坎)이 되고, 이(頤)괘는 1·2·3·4·5·6획이 대리(大离)가 되는 것으로 여러 획을 한꺼번에 크게 보아 3획괘의 '감'이나 '리'를 읽어내는 방법을 말한다.

②'겸체'(兼體) 곧 '겸호'(兼互)는 한 괘에서 1·2획(地)과 3·4획(人)과 5·6획(天)으로 두 획씩 묶어서 '호체'를 취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겸체'의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8개의 괘(乾·坤·臨·遯·小過·中孚·觀·大壯)가 해당된다. 예를 들면 림(臨-地澤)괘는 두획씩 겸획(兼畫)하면 대진(大震)이 되고, 둔(遯-天山)괘는 두획씩 겸획하면 대손(大巽)이 되는 것이다.

③'도체'(倒體) 곧 '도호'(倒互)는 64卦 중에 괘의 상하를 뒤집어 놓은 '반대괘'(反對卦: 反易卦)가 성립되지 않는 8개의 괘(乾·坤·坎·離·頤·大過·中孚·小過)에서 '호체'도 성립되지 않는 건괘와 곤괘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6개의 괘를 가지고 괘가 지닌 성질을 모두 발현시키기 위해 그 괘의 상괘와 하괘를 뒤집어 보거나 '호체'를 뒤집어 형상을 취한 것이다. 예를 들면 리(離)괘에서는 2·3·4획의 '하호'를 뒤집으면 태(兌)가 되고 3·4·5획의 '상호'를 뒤집으면 손(巽)이 되는 경우요, 소과(小過)괘에서는 '하괘'를 뒤집으면 진(震)이 되고 '상괘'를 뒤집으면 간(艮)이 되는 경우이다.

④'복체'(伏體) 곧 '위복'(位伏)은 수(數)를 위주로 하는 점법에서 그

자리(位)에 의거하여 그 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보면 모든 괘에 1·2·3(奇·偶·奇)획의 감(坎)과 4·5·6(偶奇偶)획의 리(离)가 그 속에 엎드려 있다는 것이다. 64괘는 '양'획이 모두 건(乾)의 덕을 지니고 '음'획이 모두 곤(坤)의 덕을 지녀 괘덕(卦德)에서는 건·곤을 벗어나지 않고, 괘수(卦數)에서 보면 '하괘'는 모두 감(坎)이요 '상괘'는 모두 리(離)의 형태를 숨기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괘에는 천·지·수·화(天·地·水·火: 乾·坤·坎·離)의 네 개의 기둥(四柱)이 그 괘의 형상(象)과 수(數)을 주장하고 있다고 본다.[57]

⑤'반합'(牉合)은 '상괘'나 '하괘'의 한쪽은 뒤집어 보고 다른 한쪽은 바르게 보는 것으로 혼인의 점에서 형상을 취하는 방법이며, 소남(少男: 艮)과 소녀(少女: 兌)가 많다. 예를 들면 귀매(歸妹-雷澤)괘에서는 '상괘'인 진(震)을 뒤집어 보면 간(艮)으로 사위(壻)가 바깥에서 오는 형상이므로, 여자 집안이 주인이 되는 귀매의 형상이요, 점(漸-風山)괘는 '상괘'인 손(巽)을 뒤집어 보면 태(兌)로 소녀가 바깥에서 오는 형상이므로, 사위의 집이 주인이 되는 것으로 여자가 시집가는(女歸) 형상이라고 한다.

그는 이러한 '호체'의 방법에 따라 '상호괘'와 '하호괘'를 취하여 또 하나의 괘를 만드는 '양호법'(兩互法)을 독특하게 주목하였으며, 「양호작괘표」(兩互作卦表)에서는 '양호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16개의 괘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양호법'에 의해 괘를 만드는 것에 대해, "두 '호괘'(兩互)로 괘를 만드는 것은 이미 '호체'(互體)를 취하면 자연

57) 『奧全』[2], 권37, 11, '周易四箋·括例表', "六十四卦, 其剛畫皆乾, 其柔畫皆坤, 則六十四卦, 無一不囿於乾坤之範圍也, 六十四卦, 其下卦皆离(一二三奇偶奇), 其上卦皆坎(四五六偶奇偶), 則六十四卦, 無一不函於坎离之管轄也, 若是者 何也, 天地水火, 易之四柱也, 故其分布諸卦, 而主其象數如此."

히 괘를 이루는 것이지, 억지로 그렇게 교묘하게 꾸며낸 것이 아니다. 두 '호괘'로 괘를 만든 것은 성인이 백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한 것이며, 또한 백성들이 사악한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58]라고 하였다. 곧 '양호법'으로 괘를 만드는 것이 인위적 조작이 아니라 '호체'의 방법을 확립하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나아가 '양호법'의 기능으로서 혼인의 점을 쳤을 때 '태'(泰)괘가 나왔다면 '태'괘에서 혼인의 형상을 찾을 수 없지만 '양호'로 괘를 만들면 '귀매'(歸妹)괘가 되어 혼인의 점괘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역'의 활용을 넓혀주는 역할과, 바르지 못한 일로 점을 쳤을 때 길한 괘가 나와도 '양호'로 괘를 만들어 보면 불길한 징조를 볼 수 있어서 '역'을 잘못 이용하는 과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⑷ '효변'(爻變)--효의 변동으로 괘의 유통

점을 쳐서 어떤 괘의 어떤 효를 얻게 되었을때, 그 괘(本卦)의 효가 변하는 것이 '효변'이요, '효변'으로 다른 괘(之卦: 變卦)가 얻어지게 되는데, 그 효의 점괘는 '효변'으로 얻어진 '지괘'(之卦)의 '효사'를 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괘 初九는 '효변'하여 '건괘가 구(姤)괘로 변한 것'(乾之姤)이 되고, 곤괘 初六은 '효변'하여 '곤괘가 복(復)괘로 변한 것'(坤之復)이 된다. 그렇다면 모든 괘는 그 여섯 획의 하나 하나에 '지괘'가 있으니 '효변'으로 여섯 괘가 얻어질 수 있다. '양'으로만 이루어진 건괘와 '음'으로만 이루어진 곤괘의 경우, 여섯 획 전체가 효변(用九·用六)하면 건괘의 '지괘'는 곤괘가 되고, 곤괘의 '지괘'는 건괘가 된

58) 같은 곳, "兩互作卦者, 旣取互體, 自然成卦, 非苟爲是工巧也, 兩互作卦, 聖人所以前民用也, 亦所以禁民邪也."

다는 것이다.

그는 괘에서 1·2·3·4·5·6의 자리(位)를 표시하는 것을 '획'(畫)이라 하고, 그 획이 변하는 것을 '효'(爻)라고 한다. 곧 「계사상전」에서 "효란 변함을 말하는 것이다"(爻者, 言乎變者也)라고 한 말을 따라, "효란 변하는 것이니, 변하지 않는 것은 '효'가 아니다.…'효'란 교차하는 것이니, 음과 양이 교차하여 바뀌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획'을 '효'라고 아는 것은 그 핵심에서 이미 그릇된 것이다"[59]라고 언급함으로써, 자리를 표시하는 '획'과 변화의 작용을 내포한 '효'가 형태는 같아도 의미가 다르다는 차이를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변동하는 것이 '효'가 되니, 만약 변동하지 않는 것이라면 '효'라고 이름붙이지 못한다. 한(漢)·위(魏)이래 '획'을 '효'라고 인식하여 명칭과 의리가 어긋나게 되어 꿈 속에서 꿈을 풀이하니, 한스럽다"[60]고 하여, '획'과 달리 '효'는 변동하는 것이요, '효'라는 명칭에는 이미 '효변'의 성질이 내포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역'해석에서 기본과제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한 괘에서 '양'효를 노양(老陽)의 수인 '九'라 하고 '음'효를 노음(老陰)의 수인 '六'이라 일컫는 것은 늙음이 변함을 의미하므로, '九'는 '노양'이 변동하여 '음'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六'은 '노음'이 변동하여 '양'이 되는 것을 가리켜, '효'가 변함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효변'을 알지 못하면 그 '효사'에서 가리키는 물상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좌전』(昭公29년)에 채묵(蔡墨)이 위헌자(魏獻子)의 질문에 『주

59) 『與全』[2], 권37, 12, '周易四箋·括例表', "爻者變也, 不變非爻也,…爻者交也, 謂陰陽交易也, 今人認畫爲爻, 頭腦已誤也."

60) 『與全』[2], 권44, 6, '周易四箋·繫辭上傳', "動者爲爻, 若其不動者, 不名爲爻, 漢魏以來, 認畫爲爻, 名義乖舛, 夢中說夢, 嗟哉."

역』을 인용하여 대답하면서, "건(乾)괘에서 구(姤)괘로 변함(乾之姤)은 '잠복한 용은 쓰지 말라'(潛龍勿用)고 하였고,…곤(坤)괘가 박(剝)괘로 변함(坤之剝)은 '용이 들에서 싸운다'(龍戰于野)고 했다"는 문헌적 증거를 통해, 춘추시대에는 『주역』의 '효사'를 '효변'으로 읽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춘추시대 복사(卜史)가 점을 친 경우에서 진경중(陳敬仲)이 '관괘가 비괘로 변함'(觀之否)이나 진(晉)나라 백희(伯姬)가 '귀매괘가 규괘로 변함'(歸妹之睽)의 점괘를 얻었다는 등 『좌전』의 많은 관점(官占)들이 '효변'에 의해 얻은 '지괘'(之卦)로 점괘를 해석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는 한나라 이후 역학자들이 '추이'와 '물상'과 '호체'의 방법은 언급되어 왔지만, '효변설'은 끊어져 전승되지 못한 것이 바로 '역'을 읽을 수 없게 되었던 까닭이라 지적하였다.[61] 여기서 그는 '효변'이 이해되지 못하면서 '추이'도 통하지 못하게 되어 폐기되었고, 「설괘전」의 '물상'도 부합하지 않아 견강부회하다가 폐기되었으며, '호체'도 합치되지 않아서 폐기되고 말았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여, '효변'의 이해가 결여되면서 '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불가능하게 되었던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62]

『주역』은 다른 경전과 달리 한 부분을 잘 모르고 다른 부분을 잘 아는 경우가 있을 수 없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본다. 곧 "『주역』에서는 '효변'의 방법에 통달하지 못하면, 『주역』이라는 책의 64괘 384효가 모두 다 어긋나버려서, '음'을 '양'으로 알고 '양'을 '음'으로 알게 되어,

---

61) 『與全』[2], 권37, 13, '周易四箋·括例表', "自漢以來, 爻變之說, 絶無師承, 此易之所以晦盲也, 辟衍之推移也, 說卦之物象也, 互體之博取也, 此三者, 九家諸易, 皆能言之, 至於爻變之義, 自漢至今, 絶無影響, 此易之所以不可讀也."

62) 같은 곳, "爻不變, 則推移之法, 亦不可通, 此推移之所以廢,…爻不變, 則說卦物象, 亦皆不合, 此說卦之所以廢,…爻不變, 則互體之物, 亦皆不合, 此互體之所以廢."

하나의 '효'도 요행으로 어긋남을 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또는 밝은지 어두운지를 논할 수 있겠는가"[63]라고 강조한다. 그만큼 『주역』은 그 전체가 일체를 이루어 연결되고 있으므로, 부분적 이해란 불가능한 것이며, 특히 '효변'을 모르고서는 음·양조차 분별할 수 없으니 '역'해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긋날 수 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그의 '효변론'은 '역'해석의 방법에 새로운 시야를 열어준 것으로 중시된다.[64] 그러나 그는 '효변'의 방법이 자신의 독창적 것이 아니라, 송나라 도결(都潔)이 저술한 『주역변체』(周易變體)에서 춘추시대 채묵(蔡墨)의 말을 써서 '건'괘 6효의 사례를 '지괘'(之卦) 위주로 논의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자신은 이 내용을 『문헌통고』(文獻通考)의 「경적고」(經籍考)에 소개된 내용만 보았을 뿐 책을 못보아 안타까웠던 사실을 토로하기도 하였다.[65]

정약용이 『주역사전』에서 '역'해석의 기본방법(大義)으로 제시한 '역리사법'의 '추이'·'물상'·'호체'·'효변' 네가지 방법은 그 구조에서 보면 역할의 질서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물상'은 '역'을 만드는 기본원리로서 64괘와 384효는 사물의 형상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추이'·'효변'·'호체'은 괘·효가 물상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방법이 된다. 그는

63) 같은 곳, "至於周易, 不達爻變之法, 則一部易, 六十四卦三百八十四爻, 悉悉乖反, 認陰爲陽, 認陽爲陰, 無有一爻倖而免於乖反者, 其又有得失明暗之可論哉."

64) 방인은 정약용의 '효변론'이 '역'해석사에서 코페르니크스적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높이 평가하여, "茶山의 爻變이론은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전통적 역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혁신적 이론이다.…茶山의 爻變은 해석방법론의 측면에서 正反對의 전환을 한 셈이다. 따라서 茶山의 爻變論은 易經解釋史에 있어 코페르니쿠스(Kopernikus)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였다.(方仁, 「周易四箋 解題」, 『주역사전 역주』, ???쪽)

65) 『與全』[2], 권48, 35, '易學緖言', "文獻通考經籍考, 載周易變體十六卷, 宋都潔所撰, 用蔡墨言乾六爻之例, 專論之卦爲主, 恨未得此書見之也."

'추이'·'효변'·'호체'를 '역'해석의 세가지 요체라는 의미로 '삼오'(三奧)라 하며, "'삼오'가 갖추어지면 '물상'이 신묘하게 합쳐지고, '삼오'가 갖추어지면 (음·양의 획이) 오르고 내리며 가고 오면서 줄거나 늘고 생기거나 없어지는 모든 움직임이 여기에 깃들어, 성인의 정감이 말씀(辭: 卦辭·爻辭)에서 드러난다"[66]고 하여, '삼오'(三奧: 推移·爻變·互體)가 '괘'·'효'의 변동과 '물상'을 일치시켜주는 '역'의 해석방법임을 밝히고 있다.

2) '3역'(三易: 交易 · 反易 · 變易)의 '역' 해석

정약용은 '역리사법'을 '역'해석의 기본방법으로 정립하고 있지만, '역'을 해석하는데서 발생하는 다양한 예외적 현상에도 변화의 법칙을 찾아 보완하는 이론을 계발해갔다. 그는 '역리사법'에서 제시된 '추이'의 본래적 방법과는 달리 괘가 변화하는 양상으로 '상괘'와 '하괘'를 바꾸어놓는 '교역'(交易)과 여섯 획이 모두 변하는 '변역'(變易)과 괘의 상하를 뒤집어 놓고 보는 '반역'(反易)의 세가지를 '3역'(三易)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익(益-風雷)괘를 '교역'하면 항(恒-雷風)괘가 되며, 준(屯-水雷)괘를 '변역'하면 정(鼎-火風)괘가 되고, 수(隨-澤雷)괘를 '반역'하면 고(蠱-山風)괘가 되는 경우들이다.

그는 '역'의 발생과정에서 보면 복희가 처음 괘를 그릴때는 단지 '교역'의 방법만으로 '단괘'(單卦: 八卦)를 아래 위로 서로 바꾸어놓아 중괘(重卦: 64괘)를 이루었다고 하고, 그후에 '추이'의 방법을 얻은 것이

66) 『與全』[1], 권16, 14, '自撰墓誌銘(集中本)', "易有三奧, 一曰推移, 二曰爻變, 三曰互體,…三奧具而物象妙合, 三奧具而升降往來消長起滅, 萬動以寓, 而聖人之情, 見乎辭."

라 확인한다. 따라서 그는 '추이'의 방법만큼 비중은 없더라도 '교역'의 방법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역사(易詞)에서는 12'벽괘'의 굳건하여 변화가 적은 것은 반드시 '교역'의 의미를 취해 그 점괘의 말(繇)을 지었다"[67]고 확인한다. 그 사례로서, 태(泰)괘 괘사의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온다"(小往大來)는 말이나, 쾌(夬)괘 괘사의 "왕의 뜰에서 드러낸다"(揚于王庭)는 말 등은 '교역'에 따른 형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주역』에서 64괘의 배열순서가 전반적으로 '반역'의 방법을 쓴 것이요, 그 가운데 '반역'을 해도 '반대괘'(反對卦)가 없는 8개 괘(乾-坤, 坎-離, 頤-大過, 中孚-小過)의 경우에는 '변역'의 방법으로 상대되는 괘를 만들었다 하여, 64괘의 배열이 '교역'과 '변역'의 방법으로 두괘씩 상대시킨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는 '교역'·'변역'·'반역'의 세가지를 겸하고 있는 경우로 4개의 괘(泰-否, 旣濟-未濟)와, '교역'·'변역'의 두가지를 겸하고 있는 경우로 4개의 괘(咸-損, 恒-益)와, '교역'·'반역'의 두가지를 겸하고 있는 경우로 8개의 괘(需-訟, 大有-同人, 比-師, 晉-明夷), 및 '변역'·'반역'의 두가지를 겸하고 있는 경우로 4개의 괘(隨-蠱, 漸-歸妹)를 분석하여, 이러한 64괘의 구성과 배열에서 '3역'(交易·反易·變易)의 변화방법이 내재된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 '역리사법'의 역학적 의미

정약용은 '역'의 해석방법으로 추이(推移)·물상(物象)·호체(互體)·효변

67) 『與全』[2], 권40, 17, '周易四箋·括例表(下)', "其在易詞, 十二辟卦之强直寡變者, 必取交易之義, 以撰其繇."

(爻變)의 '역리사법'(易理四法)을 체계화하고, 이와더불어 교역(交易)·반역(反易)·변역(變易)의 '삼역'(三易)을 제시하며, 「독역요지」(讀易要旨)에서 18칙을 제시하여, '역'을 해석하는 원칙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방법의 이론적 체계화는 '역'의 '괘사'나 '효사'를 해석하면서 자의적으로 유추하는 데 따른 애매함과 왜곡이 초래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예외적 경우에도 벗어날 수 없는 해석의 원칙들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의 '역'해석 이론은 마치 어떤 범죄도 이미 정해진 법조문에 의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률원칙처럼, '역'의 변화나 응용의 모든 현상을 일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 그것은 법조목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재판관의 주관적 사유나 감정과 의지에 따른 판결이 공정한 재판을 어지럽혔던 것처럼, '역'해석에도 주관적 판단과 자의적 유추로 해석하면서 한나라 이후 '역'해석이 어둠 속에 빠져있었다는 역학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요, 동시에 그 자신이 정립한 '역'해석방법은 '역'의 구조와 체계를 투명하게 밝혀줌으로써 '역'해석의 혁신이요 완성을 이룬 것이라는 확신을 밝히는 것이다.

곧 그는 '물상'을 가볍게 여기고 의리를 강조한 왕필(王弼) 이후의 '역'해석이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철저히 비판하여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효'(爻)를 '획'이 불변하는 자리(位)를 가리키는 것과 구별하여, '획'의 음·양이 오르내리고 왕래하여 변동하는 것으로 '효'의 본질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에따라 그는 한나라 이후로 '효'의 변동법칙인 '효변'의 이해가 망실되면서 '역'해석은 마치 딱딱하게 말라버린 나무처럼 죽은 방법(死法)이 되고 말았던 것이라 비판한다. 그는 '역'이 굳어진 괘·효로 놓여있는 정태적(靜態的)인 것으로 보는 입장을 극복하고, 다양하게 변동하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를 '역리사

법'을 비롯한 여러 법칙에 따라 변동의 법칙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의 '역'해석입장이 지닌 특징에 대해, "정물화(靜物畵) 속의 정태적 요소들에 숨을 불어넣어 소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역리사법'을 변증법적 방법론으로 지적하기도 한다.[68] 이처럼 그의 '역'해석은 '역'을 끊임없이 변동하는 현실세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역'자체가 변동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지닌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변동의 법칙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법칙들을 체계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역리사법'에서 특히 '추이'를 통해 '건'·'곤'으로부터 '12벽괘'(乾·坤을 포함하여 14辟卦)로 나오고, 다시 '50연괘'로 펼쳐지는 '역'의 발생과 전개과정의 질서를 확인하며, '효변'을 통해 하나의 '괘'에서 여섯 '효'가 각각 다른 괘(之卦)로 연결되어, '역'의 모든 괘가 다른 괘들과 연결망을 형성하여 교류하고 소통하는 입체적 연결망의 체제로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역'의 괘·효가 내포하는 다양한 기호적 기능과 지시체계를 종횡으로 설명하기 위해 '호체'의 방법을 끌어내며, '호체' 속에서도 '대체'(大體: 大互)·'겸체'(兼體: 兼互)·'도체'(倒體: 倒互)·'복체'(伏體: 位伏)·'반합'(牉合)의 여러 응용형식까지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64괘'의 배열순서가 지닌 질서를 교역(交易)·반역(反易)·변역(變易)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약용의 '역'해석방법은 '역'에 내포된 형상과 변동의 모든 다양성을 정연한 법칙으로 명쾌하게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것은 마치 여러 가지 기능을 지닌 복잡한 기계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밝혀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여 본래의 기능을 온전하게 작동시키는 작업이라 하겠다.

---

68) 方仁, 「茶山易의 변증법」, 『주역연구』3, 한국주역학회, 1999.

혹은 다양하고 정밀한 자연법칙을 발견하고 체계화하여 자연의 물리적 내지 화학적 변화현상을 빈틈없이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 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그는 '역'해석방법의 체계화는 복희에서 문왕·주공·공자를 거쳐 이루어진 성인의 '역'제작과 해석의 본래 의도를 밝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공자이후 혼동되고 왜곡된 '역'해석의 오류를 씻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영문요약>>

Jeong Yak-yong's Methods of Interpretation on *The Book of Changes*

Keum, Jangtae

Jeong Yak-yong presented the four methods about the transition of the *Kua* the Versachlichung(or symbolic image) of things, the piling structure of the *Kua* and the change of the *Hsiao*(爻) as a standard interpreting methods of the *book of Changes* 『周易』 in the *Four Commentaries on the Book of Changes* (周易四箋). In this book, he_agreed that *Chu Hsi*'s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Changes*(周易) not only played an important part in correcting the error of the tradition of the science of divination, but systematized the interpreting method of the science of divination exceeding the limit that even *Chu Hsi* didn't explain the logic clearly. His theory of interpreting *I* (易) established the principle that explain all conditions about the

transition and application of *I*(易). It explains all varieties of symbolic images and transitions including *I*(易) to well-ordered principle clearly, so it is similar to get the original functions working wholly by repairing the trouble and accounting for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principle of an intricate machine which has various functions.

<키 워드>
the transition of the Kua(推移)
the Versachichung(or symbolic image) of things(物象)
the piling structure of the Kua(互體)
the change of the Hsiao(爻變)
The Book of Changes(周易)
The Four Commentaries on the Book of Changes(周易四箋)